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2014년 3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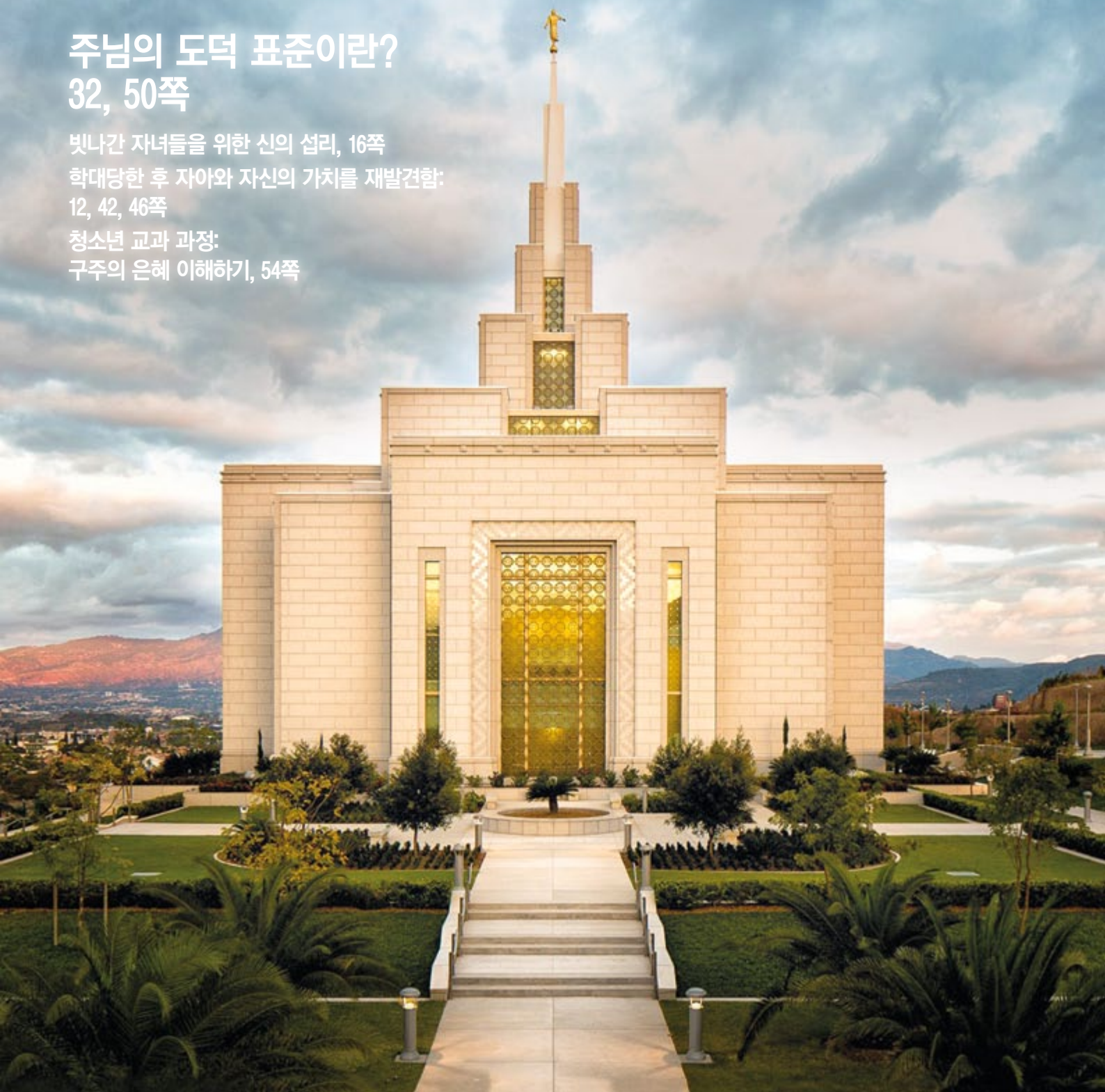
리아호나

주님의 도덕 표준이란?
32, 50쪽

벗나간 자녀들을 위한 신의 섭리, 16쪽

학대당한 후 자아와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함:
12, 42, 46쪽

청소년 교과 과정:
구주의 은혜 이해하기, 54쪽



"어머니가 되는 일은 취미가 아니라 소명이다. …… 그 일은 시간을 낼 수 있을 경우에만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그 일을 하라는 뜻에서이다."

레이첼 잰코빅, 닐 엘 앤더슨, "자녀",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28쪽.

리아호나, 2014년 3월호

14

메시지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섬김과 영생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7 방문 교육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
세상의 빛

특집 기사

16 충실한 부모와 빗나간 자녀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오해 풀어 가기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부모들이 빗나간 자녀들에 관한 정확한 교리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조언한다.

22 각국의 개척자들
짐바브웨—아름다운 땅, 신앙의 사람들
짐바브웨의 굳센 개척자들은 전 세계에 있는 회원들의 본보기로 우뚝 서 있다.

28 흔들리지 않았다
레이드 타테오카
2011년 일본 지진과 쓰나미의 여파 가운데에서도 이 선교사들은 주님께 돌이키는 것을 잊지 않았다.

32 주님의 도덕 표준
태드 알 콜리스터 장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이 세우신 도덕 표준에 관해 단지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된다. 그분의 음성은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음성이 낼 수 있는 것들을 능가한다.

교회 본부 기사

8 2013년 10월 연차 대회 노트

10 구약의 선지자들
아브라함

11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가르치기:
성적 순결

12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짐은 사라졌다
익명

14 교회에서 봉사함
낯선 사람을 섬김
박용길

38 후기 성도의 소리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로리 풀러

표지
앞쪽: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성전 사진, 코디 벨
표지 안쪽: 사진 삽화, 브래들리 슬레이드

청년 성인

42 성공을 거두기 위해
리차드 엠 롬니
이 세 명의 청년 성인처럼 여러분도 일상에서 복음을 나눌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네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청소년

46 학대에서 비롯된 비극적인 상처를 치유하며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다른 사람들이 내린 나쁜 선택은 여러분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야기할 수는 있을지언정 여러분의 영원한 가능성을 파괴하지는 못합니다.

50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청결한 마음과 깨끗한 몸
닐 에프 메리엇

52 항상 조심하세요
익명
외설물에 관한 내 문제를 감독님께 이야기하기까지 1년 반이 걸렸다. 하지만, 그런 경우 그렇게 오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53 좋은 친구들을 선택하는 방법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친구는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될지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54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속죄
조슈아 제이 퍼키
주 예수 그리스도덕분에 여러분이 그분의 은혜에 의지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57 포스터: 여러분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8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이걸 해도 되는 걸까?
하이디 맥콩키
복음을 여러분의 생활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여러분의 생활을 복음에 맞추십시오.

61 해답을 찾아서

62 인터넷 펜팔
스테파니 에이서슨
여러분은 이제 페이스북과 다른 매체를 활용해서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64 그 전화를 놓쳐서는 안 돼
데이비드 딕슨
다가오는 연차 대회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놓치게 될까요?

어린이

66 정말 누군가가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걸까?
루카스 에프, 수잔 배렛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듣는다는 확신이 서지 않았을 때 어떻게 기도에 대한 간증을 나눌 수 있었는가?

68 명석한 생각

69 우리들 이야기

70 전 세계 친구들
저는 짐바브웨에 사는 텐다이입니다
애미 제인 레빗

72 인형 놀이:
짐바브웨에 사는 무디와

73 영을 느꼈습니다
린다 케이 버튼
신권 축복과 초등회 노래는 내가 성신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었다.

74 가정에서 초등회 적용하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다

76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축복으로 가득한 정원
린다 프랫

81 선지자 초상화:
에즈라 태프트 벤슨

2014년 3월호 제51권, 제3호
리아호나 10983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임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댈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크레이그 에이 카든
고문: 호세 엘 알론소, 머빈 비 아놀드, 세인 엠 바운, 스탠리 지 엘리스, 크리스토펄 골든 이세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와너
운영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수잔 배렛, 브리트니 비애티, 데이비드 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톤, 민디 라예 프리드만, 로리 풀러, 게릿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건트, 제니퍼 그레이스 존스, 마이클 알 모리스, 샐리 존스 오데커크, 조슈아 제이 퍼키, 잰 핀보로우, 리차드 엠 롬니, 폴 벤덴버그, 머리사 윗슨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눗슨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콜린 힝클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콧 엠 무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큰호스트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제작 팀: 케빈 시 뱅크스, 콘니 바소프 브릿지, 줄리 버뎃,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드니스 커비, 지니 제이 널슨, 가일 타테 러퍼티
사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위크
배부 책임자: 스티븐 알 크리스텐슨

통권: 제568호, 제51권, 제3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4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잡지 구독 신청서"는 www.lds.or.kr "교회와 연락하기 〉 배부 센터 〉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에 온라인으로, 또는 liahona@ldschurch.org에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다음 주소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m.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몰몬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샬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자)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4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email: corintellectualproperty@ldsc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March 2014 Vol. 38 No. 3. LIAHONA (USPS 311-480) Korean (ISSN 1521-479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707.4.12.5).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이 실려 있다. 다음은 두 가지 아이디어이다.

사진 삽화: 크레이그 단이먼드

"좋은 친구들을 선택하는 방법", 53쪽: 잡지에서 청남 청녀 사진 몇 장을 오려서 각 사진에 대한 짧은 설명 문구를 만든다. 예를 들어, 청남 사진 하나를 들어 보이며 "아론을 소개합니다. 아론은 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가족과 함께 정기적으로 유대교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요. 운동을 좋아하고 나쁜 말을 입에 담지 않는 아이죠." 각 사진에 대해 이런 짧은 설명을 만든다. 자녀들에게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좋은 친구이겠느냐고 묻는다. 야고보서 2장 23절을 읽어 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다", 74쪽: 부활절이 다가온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축복을 상기하기 위해 이 계절에 특별한 일을 하고 싶을 것이다. 매일 저녁 식사 때 가족 구성원이 돌아가며 그날 받은 축복을 이야기한다. 각 축복에 대해 구슬을 병에 한 개씩 모음으로써 이 축복을 기억할 수도 있다. 가정의 밤을 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성구를 읽고 이 아이디어를 소개한 다음, 자녀에게 그 성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려 보게 해도 좋다. "주 예수를 닮으려고" (*어린이 노래책*, 40~41쪽) 또는 구주에 관한 다른 노래를 부른다.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페이스북에서 *리아호나*에 접속하려면 **facebook.com/liahona.magazine**을 방문한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가 실린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족, *16*
간증, *66*
감사, *28, 76*
개척자, *22*
기도, *58, 66*
도덕성, *11, 32, 50, 52*
미디어, *32, 52*
봉사, *14, 41, 57*
선교 사업, *22, 28, 42, 62*
선지자, *64*
성신, *73*
성전, *80*
성찬, *28*
속죄, *12, 16, 46, 54*
아브라함, *10*
언어, *16*
에즈라 태프트 벤슨, *81*
역경, *12, 28, 42, 46*
연차 대회, *8, 64*
예수 그리스도, *12, 54, 74*
외설물, *32, 52*
용서, *46, 50, 52*
우정, *53, 62*
은혜, *54*
정숙함, *32*
표준, *32, 58*
학대, *12, 32, 46*
회개, *32, 46, 50, 52*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섬김과 영생

구주는 비이기적인 섬김의 본보기가 되십니다. 그분의 완전한 삶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모든 자녀를 섬기는 데 바쳐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일치된 목적은 우리 모두에게 불멸의 은사와 영생의 축복을 주시려는 데 있습니다.(모세서 1:39 참조)

우리가 영생의 자격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변화되어야, 즉 거듭나고 죄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여덟 살이 되지 않은 어린이들은 죄가 없으며, 속죄를 통해 구속됩니다.(모사이야서 3:16, 21; 모로나이서 8:10~12 참조)

책임질 수 있는 연령에 이른 모두에게는 죄에서 깨끗하게 됨으로써 영생을 준비해야 하는 멋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 준비는 신권 권세를 통한 침례와 성신을 받음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항상 구주를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몰몬경에서 베냐민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죄의 용서를 느끼는 데서 오는 기쁨을 백성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 후 그는 백성들에게 죄 사함을 유지하고 서로 섬기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며, 주위 사람들의 현세적 및 영적인 필요 사항이 충족되도록 돕는 일에 최대한 너그러워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모사이야서 4:11~16 참조)

아울러 베냐민 왕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함은 너희로 지혜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너희로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모사이야서 2:17)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가르치고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사도행전 10:38 참조)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권능으로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었던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마태복음 14:14~21; 요한복음 6:2~13 참조)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로 다가오자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요한복음 21:12~13 참조) 미 대륙에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어린이들을 하나씩 축복하셨습니다.(제3니파이 17:7~9, 21 참조)

사도 야고보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고마움에서 남을 섬기고자 하는 소망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야고보서 1:25, 27)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편 중 하나는 구주를 위해 사람들을 섬기려는 소망이 커지는지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해져 갈 때 가정 복음과 방문 교육은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닌 즐거운 일이 됩니다. 지역 사회 내에 있는 학교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더 자주 자원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줄 돈이 거의 없을지라도 더 많이 주기 위해 더 많이 갖고 싶어 할 것입니다.(모사이야서 4:24 참조) 자녀에게 더 잘 하고, 또 남을 섬기는 방법을 그들에게 몸시 보여 주고 싶어합니다.

성품이 달라지면서,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더 많이

봉사하고 싶은 소망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만은 알아줄 것이라는 일념으로 물심양면으로 크나큰 봉사를 아끼지 않은 구주의 제자들을 압니다. 하나님은 이 생에서 축복을 주어 그들의 봉사를 인정하셨으며,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서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마태복음 6:1~4; 제3니파이 13:1~4 참조)

여러분은 남을 섬기라는 계명을 지켰을 때(마태복음 22:39 참조) 자부심 면에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구주께서는 사도들이 그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지에 관해 논쟁하자 잘못을 고쳐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마태복음 23:10~11)

구주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남을 섬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완전하게 섬기셨으며, 구주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배우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93:12~13 참조) 우리는 봉사를 통해 좀 더 그분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원수를 사랑하시듯이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마음의 힘을 다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마태복음 5:43~44; 모로나이서 7:48 참조)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영생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주의 가르침과 본을 따르면 더욱 완전하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밸라드 장로는 봉사할 기회를 찾기 위해 기도하도록 권고했다. "매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아침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 중 한 명에게 봉사할 기회를 찾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루 내내 ……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보십시오."("열심히 노력하여",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31쪽)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봉사할 기회를 얻기 위해 아침마다 기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하루 내내 그 기회를 찾아보라고 권유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본다.

사진 삽화: 조 루크

친구의 기도에 대한 응답

사이필라일 쿠말로

어느 날 밤, 나와 신앙이 다른 한 친구가 찾아왔다. 평소에 나는 경전을 혼자 공부해 왔으며, 그날 밤에도 경전을 갖고 나왔다. 친구에게 함께 경전 공부를 하자고 권하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두려운 생각도 들고 해서 그냥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다. 나는 영의 속삭임을 무시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몇 분 후, 나는 친구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나랑 경전 공부를 하면 어떻겠니?” 친구는 주저 없이 대답했다.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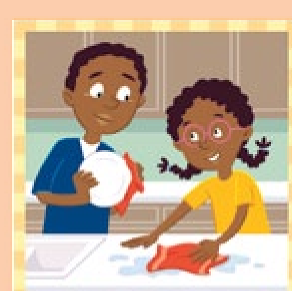
그런 후 우리는 몰몬경을 읽었다. 친구는 몇 가지 질문을 했으며, 나는 대답하는 동안 영의 인도를 느낄 수 있었다. 몰몬경의 참됨에 대한 간증을 했다. 그러자 친구는 말했다. “난 온종일 울었고 두려웠어. 네가 함께 경전을 읽자고 말했을 때, 사실 나는 하나님께 도와 달라고 막 기도했던 참이었지. 이제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 고마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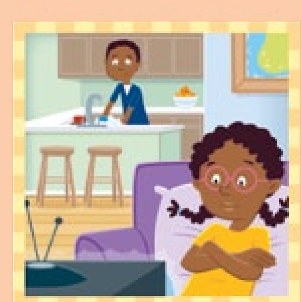
주님은 도움이 필요한 한 자녀가 드린 기도에 대해 응답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나를 도구로 쓰셨다. 나는 그 속삭임이 지혜롭고 영화로우신 아버지로부터 온 성스러운 지시였음을 안다. 두려움을 물리칠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분은 힘을 드러내신다.

글쓴이는 남아프리카 가우텡에 산다.

봉사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다른 사람을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림에 동그라미를 그리세요.





왼쪽 글: 삽화 돈 시그밀러, 어린이들 삽화 케이티 맥디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누구와 나눌지 알기 위해 간구한다. 구주의 생애와 사명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을 믿는 신앙을 키우고, 방문 교육을 통해 여러분이 돌보는 자매들을 축복할 수 있는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reliefsociety.lds.org에 접속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 세상의 빛

다음은 구주의 사명에 관한 여러 측면을 소개하는 방문 교육 메시지 연재 기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분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커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는 모든 [남녀를] 비추는 참 빛"(교리와 성약 93:2)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관해 증거하셨으며, 우리에게 "[그분의] 빛을 들어 그것으로 세상에 비취게 하라"(제3니파이 18:24)고 당부하셨다.

우리의 선지자들 또한 그리스도의 빛에 관해 증거했다.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좀 더 구주와 같은 삶을 살려고 선택할 때마다 간증이 튼튼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직접 알게 될 것입니다. ……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여 비출 것입니다."[1]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 빛이 되는 존재라고 말씀했다. "우리는 가족을

보호해야 하며, 지역 사회에 빛과 희망과 도덕성을 보존하기 위해 선한 사람들과 함께 앞장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2]

성구에서

요한복음 8:12; 교리와 성약 50:24; 115:5

주

1. 헨리 비 아이어링, "살아 있는 간증",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128쪽.
2. 쿠엔틴 엘 쿡, "빛이 있으라!",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30쪽.
3.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년), 163쪽 참조.
4. *내 왕국에 속한 딸들*, 164쪽 참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오늘날의 세상에 빛이 된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토론한다.
2. 그리스도의 빛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시련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본다.

사진 삽화: 데이비드 스토커

신앙, 가족, 구제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후기 성도 여성들은 오늘날 계속해서 자신들의 빛을 들어 올리고 있다.

신체장애가 있는 한 독신 자매는 홍콩에서 80층짜리 건물에 살았다. 가족 중 유일하게 교회 회원인 그녀는 혼자 살면서도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의 안식처를 가꾸었다. 그녀는 경전과 상호부조회 교재와 찬송가를 늘 곁에 두었다. 또한 성전에 가서 조상들을 위해 의식을 받았다.[3]

브라질에는 자녀들을 복음의 빛 안에서 키우는 한 의로운 어머니가 있다. 그녀의 붉은 벽돌집에서는 초등회 노래가 흘러나왔고, *리아호나*에서 오려낸 성전과 하나님의 선지자들, 구주의 사진이 벽 곳곳에 붙어 있었다. 그녀와 남편은 자녀들이 성약 안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많은 희생을 치른 끝에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다. 그녀는 자녀들을 빛과 진리, 그리고 복음의 힘 가운데에서 키울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다.[4]

2013년 10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2013년 10월 연차 대회를 복습하면서 다음 내용(그리고 향후 리아호나에 실릴 연차 대회 노트)을 활용하여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전한 최근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선지자의 말씀

"남녀간의 결혼은 주님의 교리에서 기본이 되는 사항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중대한 부분입니다. 남녀간의 결혼은 지상과 하늘에서 생명이 충만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참된 기쁨을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모형을 오용하고 오해하거나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마태복음 19:4~6 참조] 하나님의 결혼 모형은 생명 창조라는 성스러운 힘과 결혼 관계의 기쁨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로 결합하는 기쁨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혼시키셨다는 것을 압니다."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영원을 위한 결정",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108쪽

여러분을 위한 해답

각각의 연차 대회에서 선지자와 사도들은 교회 회원들이 갖고 있을만한 질문에 영감 어린 대답을 해줍니다. 2013년 11월호를 이용하거나 conference.lds.org에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십시오.

- 가족이 복음에서 멀어졌다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헨리 비 아이어링, "내 손주들에게" 참조
- 자녀들을 양육할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보이드 케이 패커, "영적인 보호의 열쇠" 참조
- 여성의 영향력이 왜 중요합니까?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여성의 도덕적 힘" 참조

연차 대회 말씀을 읽거나 시청 또는 청취하시려면 **conference.lds.org**에 접속하십시오.

비교하기: 하나님의 사랑

연차 대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몇몇 주제에 관해 한 명 이상의 연사가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신 세 분의 말씀입니다.

-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1]—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주님은 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곳에 있을 때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때로 기대하지 못한 순간에 주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사랑을 전해 주십니다."[2] 터렌스 엠 빈슨 장로, 칠십인
-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나그네란 없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분께 소중하지 않은 영혼은 없습니다." —제럴드 코세 감독, 감리 감독단 제1보좌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123, 124쪽
2. 터렌스 엠 빈슨,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106쪽
3. 제럴드 코세,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요",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51쪽

와드 및 일반 선교사 기금

"여러분의 관대한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그 도움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기에, 선교 사업을 하고 싶은 소망은 강하나 스스로는 방편을 마련할 수 없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연차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4~5쪽.

선지자의 약속

"의문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정직한 질문이라는 작은 도토리에서 싹이 나고 자라면, 이해라는 커다란 참나무가 됩니다. 교회 회원 중에 중대하거나 민감한 문제로 한 번쯤 고심해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교회의 목적 중 하나는 신앙의 씨앗을 키우고 재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심과 불확실이라는 모래가 섞인 흙 속에서도 씨앗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소망하는 것입니다.[히브리서 11:1 참조]

사랑하는 형제 자매 및 친구 여러분, 부디 신앙을 의심하기 전에 여러분의 의혹을 먼저 의심해 보십시오. 의심의 포로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받을 수 있는 신성한 사랑과 평안, 값진 은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와서 우리와 함께합시다",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23쪽

왼쪽 사진 삽화: 조 루크; 오른쪽 사진 삽화: 코디 펠럼스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를 때, …… 더욱 큰 행복과 화평과 위안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운 자가 될 것입니다."[1] —스펜서 더블유 킴볼(1895~1985) 회장

내가 처음에 살았던 집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늪지대에 있었다. 내 부친을 비롯하여 갈대아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 하지만 나는 참되고 살아 계신 한 하나님을 믿었으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권을 받을 날을 대비했다.[2]

어느 날, 갈대아인들은 엘케나 신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려고 나를 결박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 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 구해 달라며 기도드렸고, 결박은 즉시 풀렸다. 그런 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음성을 듣고 내려와 너를 건져내어 …… 타국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 하노라."[3]

주님은 내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축복을 주기 시작하셨다. 나는 멜기세덱을 통해 신권을 받았으며[4] 주님은 내가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되며 나의 자손을 통해 복음이 모든 인류를 축복하게 되리라는 성약을 나와 맺으셨다. 그분은 내 이름을 아브람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5]를 뜻하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다.

나는 가족을 데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다.[6] 주님은 내 자손에 관한 그분의 성약이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사라와 나는 자녀를 가질 수 없었다. 우리 둘은 너무 늙어 나는 100살, 사라는 90살이었기에 어떻게 자녀를 가질 수 있는지 의아하게 여겼다.[7]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얻었다.[8]

몇 년이 지나자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련 중 하나가 찾아왔다. 내가 인간 제물에 따르는 고통을 목격했었는데도, 주님은 나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셨다. 마음이 비통했지만, 나는 주님을 신뢰했다. 내가 이삭을 죽이려 하자 한 천사가 나를 부르며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 네가 ……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9] 주님은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치도록 숫양을 한 마리를 마련해 주셨으며, 이삭과 나는 그것을 주님께 바쳤다.[10]

나의 순종으로 주님은 그분이 맺으신 성약을 다시 확인하셨다.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11] ■

주

1. 스펜서 더블유 킴볼, "아브라함의 모범",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4쪽.
2. 아브라함서 1:1~8 참조.
3. 아브라함서 1:12, 15~16 참조.
4. 교리와 성약 84:14 참조.
5. 창세기 17:1~9; 아브라함서 2:8~11; Bible Dictionary, "Abraham" 참조.
6. 아브라함서 2:4, 18~19 참조.
7. 창세기 17:15~21 참조.
8. 창세기 21:1~3 참조.
9. 창세기 22:12.
10. 창세기 22:1~13 참조.
11. 창세기 22:17~18.

아브라함을 구하는 천사, 델 파슨;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멜기세덱*, 월터 레인,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마므레 평야의 아브라함*, 해리 앤더슨;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 데리고 감*, 델 파슨; *이삭을 제물로 바침*, 제리 하스턴; 배경 이미지: 씽크스톡/ISTOCK AND THINKSTOCK 제공/HEMERA

성적 순결

이 주제에 관한 성구

시편 24:3~4

마태복음 5:27~28

고린도전서 6:18~20

야곱서 2:27~28

앨마서 38:12

교리와 성약 46:33; 121:45

부모는 자녀에게 성적 순결에 관해 가르칠 기회가 언제 올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이따금 있다. 하지만 이 주제에 관한 논의는 영을 불러들이고 자녀가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는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호 50~51쪽을 보면, 본부 청녀 회장단 제2보좌인 닐 에프 매리엇 자매가 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 "그 이유(성적 순결을 계명으로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혼이라는 범위 안에서, 오직 신성한 목적을 위해 출산 능력을 사용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를 보면 이런 목적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을 표현하고 또 정서적, 영적 유대를 강화시키는"([2010], 21.4.4) 것이 포함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자녀에게 성적 순결에 관해 가르치는 데 아래 제언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방법을 더 많이 알아보고 싶다면, 2012년 10월호 *리아호나*에 나오는 "순결과 정결 가르치기"를 참조할 수 있다.

청소년을 가르치기 위한 제언

- 여러분의 십 대 자녀와 함께 *리아호나* 2013년 5월호에 실린, 십이사도 정원회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의 말씀인 "우리는 …… 순결을 믿는다"를 읽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녀에게 성적 순결에 관한 질문을 해 보라고 권한다. 자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리아호나* 2000년 10월호에 실린, 십이사도 정원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의 말씀인 "개인적인 순결"을 활용할 수 있다.
- 이번 달 청소년 교과 과정 일요일 공과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이다. 청소년에게 성적인 죄에 요구되는 회개에 관해 가르치기 위해 교과 과정 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본다.(lds.org/youth/learn 참조) 또한 *리아호나* 2013년 10월호에 칠십인 정원회의 시 스코트 그로우 장로가 쓴 "감독님께 무엇을, 왜 고백해야 합니까?"를 읽고 토론할 수 있다.
- 성전이 근처에 있다면, 가족과 함께 성전 경내를 방문하여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순결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토론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본다. 여러분이 성전 예배를 통해 받은 축복을 가족에게 들려준다. 가족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할 시간을 계획해 볼 수도 있다.
- 여러분의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성적 순결"([소책자, 2011], 35~37쪽)을 읽고, 순결을 유지할 때 오는 축복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적 순결과 관련된 목표를 적어 보라고 한다.

어린이를 가르치기 위한 제언

- 가정의 밤에서 성전의 중요성과 성스러움을 토론하기 위해 성전 사진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후 우리의 육신 또한 성스러운 성전이라고 설명한다.
- 자녀와 함께 신앙개조 제13조를 읽고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마음을 좋은 것으로 채워 주는 몇 가지 책과 영화, 노래를 목록으로 만든다. 함께 그것들을 읽거나 보거나 노래해 볼 수 있다. ■

삽화: 타이아 몰리

짐은 사라졌다

익명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한 후, 그 일을 누군가에게 말하기로 결심하기까지 나는 여러 해 동안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다.

최근에 나는 상호부조회 공과에서 한 자매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성적 학대가 주는 영향에 관한 인용문을 읽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였다. 그런 후 나는 구주의 속죄의 기적을 증거해 준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어린 나이에 나는 성적 학대의 희생자였다. 상호부조회 공과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오래도록 내 마음을 휩싸고 있던, 두려운 일과 결부된 어떠한 고통이나 두려움도 더는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기적이었다. 나를 치유해 주신 구주께 마음속으로 감사를 드렸다.

학대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기로 결심하기 전까지, 어린 시절에 나는 여러 해 동안 무척 힘들어했고, 수치심을 느꼈었다. 열세 살이 되자, 그 일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상호 향상 모임에서 봉사 활동을 마친 후, 나는 어느 신망 높은 지도자를 찾아갔는데, 그분은 다정하게 말씀하시며 그날 저녁에 감독님께로 나를 데려다 주셨다. 감독실로 들어오라고 권하는 감독님의 따스한 표정에 안도감을 느꼈다. 감독님이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시자 여러 해 동안 나를 짓눌렀던 비밀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만 같았던 그 느낌이 아직도 떠오른다. 그분이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흘리시던 순수한 눈물이 생각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으며, 그 학대는 내 잘못이 아니기에 나는 여전히 순결하고 정숙하다는 확신이 다시금 들었다. 그것은 여러 해 동안 이어진 치유로 가는 길의 시발점이었다.

한 순간의 치유만으로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다. 그것은 경전을 공부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친하게 되면서 얻게 된 화평과 이해, 그리고 응답의 과정이었다. 구주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그분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영은 하나님의 딸로서 내가 지닌 가치를 포함하여 여러 진리를 증거해 주었다. 마음을 주님께 돌리고,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뜻을 구하자 위안과 화평이 나를 가득 채웠다. 주님을 알게 되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마침내 과거 때문에 더는 상처받지 않게 되었다. 짐은 사라졌다. 구주께서는 나를 치유해 주셨다.

이제 나에게는 훌륭한 남편과 예쁜 세 딸로 이루어진 영원한 가족이 있다. 나는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는 축복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를 죄와 신체적 고통, 상한 마음으로부터 치유해 줄 수 있다고 간증을 전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 내게 그러한 간증이 있는 것은 자비가 나에게 베풀어지고, 내가 "그의 사랑의 팔에 영원토록 둘러싸[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니파이후서 1:15) ■

도움을 받으십시오

"치유의 과정은 사려 깊은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 또는 현명한 전문 상담가와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부러졌다면, 여러분은 혼자서 다리를 고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심각한 학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치유를 시작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완전한 치유는 구주요, 구속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이 함께할 때, 그분의 완전하고도 영원하며, 무한한 속죄를 통해 학대의 결과로 인한 여러분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학대의 파괴적인 결과를 치유함",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42쪽. 또한 이번 호 46쪽 참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치유를 우리 삶에 불러들일 수 있는가?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2013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인 "하나님의 빛에 대한 소망"을 보면, 그 답을 좀 더 잘 알 수 있다.

"첫째,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시작하십시오.

……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완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하늘이 열려 하늘의 축복이 우리 영혼을 적시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빛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

둘째,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기도로 영혼을 고양하고, 자신이 느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설명해 드리십시오. 약점을 인정하십시오. 마음속의 소망을 쏟아내고 감사를 표하십시오. 직면한 시련을 하나님께 알려 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과 도움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

셋째, 빛 안에서 걸으십시오.

…… 이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길을 밝히고 우리가 가는 길에 놓인 걸림돌을 안전하게 통과할 방법을 보여 주시고자 그분의 아들을 이 지상에 보내셨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도록 가르쳐 주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인 구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동안 그분의 빛 가운데 걷기 위해 마땅히 알아야 하고, 행해야 하며, 되어야 하는 것들을 알려 줍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75~76쪽)

낯선 사람을 섬김

박용길

한국을 떠날 날이 다가오자 걱정이 되었다. 내가 떠나면 누가 이모를 돌봐줄까?

나는 어머니가 언젠가 복음을 받아들이리라고 느꼈지만, 내 기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생전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한국 전쟁 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온 생애를 희생하셨던 굳센 여성이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주기가 되었을 때, 나는 아내와 함께 어머니의 침례와 확인을 집행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성전에 갔다. 어머니가 기쁘게 복음과 의식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강한 영을 방안에서 느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국의 어느 병원에 있던 당신의 여동생을 돌봐 달라고 부탁하셨다. 나와 가족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던 터라, 애석하게도 어머니의 연민 어린 마지막 소망을 지킬 길이 없어 보였다. 그러다 나는 예기치 않게 직장 일로 한국에 파견되었으며, 그 때문에 1년 동안 가족을 떠나 있게 되었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점이 걱정스러웠지만, 한편으론 치매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이모와 아버지를 뵙고 싶었다.

가족을 떠나 살게 되어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다. 한국에서 지낼 시간을 생각하며 아버지와 이모, 그리고 성전을 매주 방문하고 식구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기로 다짐했다.

한국에 오자 새 와드의 감독님은 나를 청남 회장과 복음 교리반 교사로 부르셨다. 아버지와 이모가 입원한 병원과 와드가 서로 꽤 멀리 떨어져 있었고 직업상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내 결심을 지키도록 힘과 체력을 축복해 주셨다.

이모를 문병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나는 이모를 찾아오는 사람이 좀처럼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주말에 이모를 모셔와 별도의 방이 딸린 내 숙소에서 지내게 해 드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렇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일요일에 이모를 모시고 교회로 가야 하나? 이모는 모임에 흥미가 없거나 이해하지도 못하는데다, 교회 모임 후에도 내가 다른 모임이나 임무를 마치도록 여러 시간을 기다리셔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모를 모셔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주 일요일에 이모를 모시고 갔는데, 예상대로 이모는 모임 후에 나를 기다려야 했다. 모든 모임을 마치고 이모를 숙소로 다시 데려와 뭘 드시게 하려고 하는데, 이모의 손에 웬 봉투가 들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게 뭐냐고 묻자 이모는 어떤 자매님이 간식이라며 주었다고 하셨다.

내가 교회 모임 후에 다른 일을 볼 때마다 우리 이모를 잘 알지도 못하시는 그 자매님은 늘 이모에게 간식을 주었다. 어느 주일, 주일학교 공과를 가르치는데 자진해서 성구를 읽는,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 왔다. 이모가 자진해서 읽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이모 곁에 앉은 어떤 자매님이 이모에게 읽어 보라고 부추겼던 것이다. 이모는 병원에 격리되어 있던 기간 탓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지만, 반원들은 모두 이모를 친절하게 맞아 주고 담소를 나누었다.

나는 일요일마다 이모를 병원에 다시 모셔다 드리면서 다음 주말에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모는 얼굴에 행복한 웃음을 지어 보이셨다.

어느 날, 한 친구는 내가 한국을 떠나면 방문이 갑자기 끊어져서 이모가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했다. 한국을 떠나기로 예정된 날이 다가오자, 나는 가족을 다시 만난다는 기쁨과 이모를 홀로 두고 떠나야 하는 괴롭고 슬픈 심경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나는 이모에게 앞으로는 자주 찾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알려 드렸다. 순간 한숨을 짓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실망했음이 분명했다. 그러다가 이모는 마음을 추스르고 나서 1년 내에 다시 올 수 있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이 여인을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보낸 일요일에 감독님은 일요일에 이모를 차로 모셔올 수 있겠는지를 와드 회원들에게 물어보셨다. 그분은 회원 몇 분이

정규적으로 이모를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하셨다. 그 수는 순번을 정해야 할 정도로 많았다. 감독님의 제안은 꿈만 같았다. 내 기도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응답되었다.

회원들이 이모네 병원에서 먼 곳에 살고 있었기에 기름 값으로 쓰라고 얼마간의 돈을 남기려 했지만, 회원들은 사양했다. 회원들은 돌아가며 한 달에 한 번만 방문할 거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매주 방문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한 신실한 자매님은 금요일마다 이모를 모셔와 종교 교육원에 참석시키고 점심을 대접했다. 그 자매님은 이모를 미용실에 모시고 가기까지 했다. 두 십 대 자녀를 둔 다른 한 홀어머니는 일요일 아침마다 이모를 모셔오겠다고 자원했다. 그 자매님은 이모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고 산책을 시켜 주었으며, 함께 음악을 듣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그 자매님은 친구가 되어 주려 했으며, 그러자 이모는 마침내 마음을 열고 그 자매님과 다른 회원들과 더불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감독님은 일요일 저녁마다 오랜 시간 교회 모임과 다른 임무들을 마치고 이모를 회원의 집에서 병원으로 다시 데려다주셨다. 그분은 목요일마다 이모에 대한 천상의 봉사를 이메일로 친절히 알려 주신다.

나는 충실한 후기 성도들이 어머니의 여동생을 섬기는 모습을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셨으리라고 믿는다. 이제 나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교회의 동료 회원들을 왜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지를 더 분명하게 알고 있다. ■

글쓴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산다.

모든 사람을 환영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 건물 문 앞에 나타난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견 없이 그들을 환영하십시오. 여러분의 모임으로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따뜻하게 인사하고 같이 앉자고 권하십시오. 부탁하건대, 그들이 여러분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환영과 사랑받는 느낌이 들도록 돕는 것을 제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한 다음에는 계속해서 도울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럴드 코세 감독, 감리 감독단 제1보좌,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요",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51쪽.

삽화: 줄리아 옐로우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충실한 부모와 빗나간 자녀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오해 풀어 가기

시온의 용감한 부모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은 자녀가 복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왜?" 혹은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리고 "이 애를 이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라는 질문이 그런 부모들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항상 맴돕니다. 이 부모들은 인도와 힘, 위로를 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경전을 찾으며, 신권 지도자와 보조조직 지도자들의 권고를 경청합니다.

빗나간 자녀들에게 미치는 충실한 부모의 영향을 이야기한 교회 총관리 역원들의 말씀은 아주 익숙한 위로의 말씀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1] 복음 성약을 지키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충실하게 봉사하는 부모들이라면 빗나간 자녀들을 구원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된 그런 메시지는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이 한 이 같은 말을 잘못 해석하여 교리적인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 혼란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교리 및 도덕적 선택 의지의 원리와 죄와 범법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일관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표준 경전에서 여러 번 반복된 진리와 현대 사도와 선지자의 명확한 가르침, 교회 역사 기록에서 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살펴본다면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진 삽화: 데이비드 스토커

후손에 대한 선지자의 약속

교회 역사가이자 기록자로 봉사했던 조셉 필딩 스미스가 편찬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에는 이런 인용문이 나옵니다. "부모가 인봉됨으로써 자녀들까지 인봉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잃어버려지지는 않을 것이며 부모의 성약의 덕으로써 구원될 것입니다."[2]

1929년, 십이사도 정원회의 올슨 에프 휘트니(1855~1931) 장로는 조셉 스미스의 말씀에 분명히 근거하여 이런 유사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충실한 부모들의 영원한 인봉과 진리의 대업에서 행하는 용감한 봉사에 대해 그들에게 주신 신성한 약속으로 그들 자신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이보다 더 위안을 주는 교리를 가르친 적은 없었습니다. 비록 양들의 일부가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으나 목자의 눈은 그들 위에 머물며, 그들은 조만간 자신에게 내밀어 우리로 다시 모으시려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든지 다음 세상에서든지 그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공의에 보응하는 빚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고통을 겪을 것이며, 어쩌면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그들을 마침내 돌아온 탕자처럼 사랑하고 용서할 아버지의 품과 집으로 이끌기만 한다면 그 고통스러운 경험은 헛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심성 없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으로 그들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까지 계속 희망을 가지고 신뢰하십시오."[3]

일부 교회 회원들은 조셉 스미스와 올슨 에프 휘트니의 말씀을 듣고는 빗나간 자녀들이 부모의 충실함 때문에 무조건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가들이 윌라드 리차즈와 윌리엄 클레이튼의 기록에 담긴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책을 편찬했을 당시, 아직 그들은 가장 정확한 선지자의 설교가 담긴 기록을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해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워드 코레이와 마사 코레이의 좀 더 완벽한 기록을 보면, 조셉 스미스는 자신의 말을 수정하여 약속된 축복이 자녀들의 순종 여부에 따라 조건적으로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한 가족의 부모가 인봉될 때 *범법하지 않은*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가 인봉되어 있는 한 그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며 이 교리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4]

이 같은 명확한 설명은 교리적으로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코레이의 기록에 담긴 추가 정보를 제외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의 무조건적인 구원이라는 개념은 신앙개조 제2조의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다]"(신앙개조 제2조) 등과 같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많은 근본적인 가르침에도 위배됩니다.

또한 이 같은 이해는 표준 경전에 나오는 수많은 예들과 일관성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 앨마는 그의 아들 코리앤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보라, *네가 하나님께는 네 범죄를 숨길 수 없나니,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그것들이 마지막 날에 너를 치는 증거가 되리라.*

이제 내 아들아, 나는 네가 회개하고 네 죄를 버리며, 더 이상 네 눈의 탐욕을 따라가지 말고, 도리어 이 모든 일에 네 스스로를 부인하기 바라노라. *이는 네가 이렇게 하지 아니할진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음이니라.* 오 기억하고, 이를 짊어지며, 이 모든 일에 네 스스로를 부인하라"(앨마서 39:8~9; 강조체 첨가)

레이맨인 사무엘은 니파이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 이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요, 또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의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만일 *그들이 정죄 받으면 그들은 자기의 정죄를 자초함이니라.*

그런즉 이제 기억하라, 기억하라, 나의 형제들아, 누구든지 멸망하는 자는 *스스로에게 멸망을 이루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죄악을 행하는 자는 *스스로에게 그것을 행하는 것이니라.* 이는 보라, 너희는 자유롭고 스스로 행하는 것이 허락되었음이니, 이는 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식을 주시고 너희를 자유롭게 하셨음이니라.

신의 섭리를 영적인 힘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빗나간 자녀를 결국 무리 속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힘을 말합니다.

선한 목자, GREG K. OLSEN

그가 너희에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셨고, 또 너희에게 생명이나 사망을 택하게 하여 주셨은즉, 너희는 선을 행하여 선한 바로 회복될 수 있으며, 또는 선한 바가 너희에게로 회복되게 할 수 있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악을 행하여 악한 바가 너희에게로 회복되게 할 수도 있느니라."(힐라맨서 14:29~31; 강조체 첨가)

다른 여러 경전 구절도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은 도덕적 선택의지를 축복으로 받은 주체자이며,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리를 뒷받침합니다.[5]

신의 섭리

교회에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이런 특정한 주제에 대해 추가로 가르친 기록이 없습니다. 이후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조셉 스미스, 올슨 에프 휘트니 및 기타 다른 이들의 말씀에서 다양한 측면을 서로 달리 강조했지만, 한 가지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성약을 지키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인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의 충실한 회원들은 가족이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도울 때 성신의 영감과 신권이라는 특권을 통해 성스러운 인도와 힘이 주는 약속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위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휘트니 장로가 묘사한 "신의 섭리"를 영적인 힘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빗나간 자녀를 결국 무리 속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힘을 말합니다. 그러한 힘이 자녀의 도덕적 선택의지를 넘어설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권유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자녀는 자신의 도덕적 선택의지를 행사하며 신앙으로 응답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였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은 영원토록 중요한 이 개념에 대해 가장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올슨 에프 휘트니 장로의 위로에 찬 다음 말씀을 믿고 또 받아들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충실한 부모들의 영원한 인봉과 진리의 대업에서 행하는 용감한 봉사에 대해 그들에게 주신 신성한 약속으로 그들 자신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이보다 더 위안을 주는 교리를 가르친 적은 없었습니다. 비록 양들의 일부가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으나 목자의 눈은 그들 위에 머물며, 그들은 조만간 자신에게 뻗쳐 우리로 다시 모으시려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든지 다음 세상에서든지 그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공의에 보응하는 빚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고통을 겪을 것이며 어쩌면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그들을 마침내 돌아온 탕자처럼 사랑하고 용서할 아버지의 품과 집으로 이끌기만 한다면 그 고통스러운 경험은 헛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심성 없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으로 그들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까지 계속 희망을 가지고 신뢰하십시오.'[6]

이 말씀에 있는 원리로서 종종 간과되는 것 한 가지는

충실한 부모는 불순종하는 자녀를 둔 다른 의로운 부모들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견뎌 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몰몬경에서 아버지인 리하이는 빗나간 아들들에게 주님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권합니다.

자녀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자신의 죄로 고통을 겪으며" 또 "공의에 그들의 부채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금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때임을 알고 있습니다.[앨마서 34:32] 만일 빗나간 자녀들이 이생에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인봉의 끈이 그들이 회개를 이룰 만큼 강하게 남는 일이 여전히 가능하겠습니까? 교리와 성약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회개하는 죽은 자는 하나님의 집의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속함을 받으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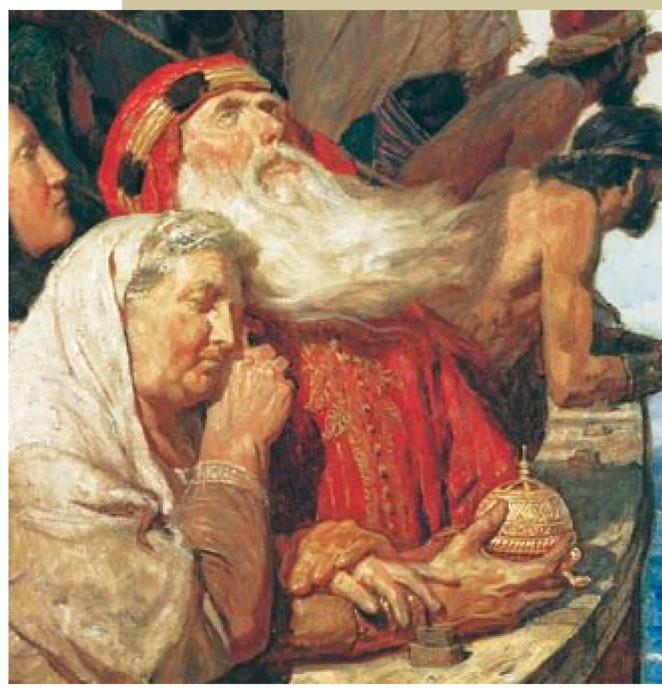
그들이 자기들의 범법에 대한 형벌을 치르고 깨끗이 씻음을 받은 후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으리라. 이는 그들이 구원의 상속자가 됨이니라.'[교리와 성약 138:58~59]

우리는 탕자가 자신의 유산을 허비하여 탕진했을 때,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을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족으로서 환영을 받았지만, 그의 유산은 다 없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5:11~32 참조] 자비가 공의를 빼앗아 가지는 못할 것이며, 충실한 부모의 인봉 권능은 오직 엇나간 자녀들이 드리는 회개와 그리스도의 속죄를 조건으로 행해질 것입니다. 빗나간 자녀들이 회개한다면 구원과 그에 부수되는 모든 축복을 누릴 것이지만, 승영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충만하게 얻어야 합니다. 누가 승영에 이를 것인가에 관한 질문은 자비로우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거역과 악한 행동이 너무도 커서 '회개할 수 없을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은 정말로 거의 없습니다.[7] 그런 심판 또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교리와 성약 64:10]

의로운 부모의 인봉의 끈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인내력을 갖는지를 우리는 아마도 이생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작용하는, 더 유용한 근원이 아마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8] 사랑하는 조상들의 영향력이 휘장 저편에서 계속 우리와 함께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가족의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9]

파우스트 회장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은 의로운 부모와 빗나간 자녀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약속의 땅에 도착한 리하이와 그의 가족 확대 그림, 아놀드 프리버그

것들을 잘 요약합니다. 성약을 존중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부모들은 한 번도 완전히 드러나거나 완벽히 이해될 수 없는 방법으로 작용하는 하나님의 섭리 덕분에 빗나간 자녀들에게 분명히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부모의 영향력도 (1) 개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고 강화하는 힘의 필요성을 대체하지 못하며 (2) 도덕적 선택의지를 의롭지 못하게 행사한 결과를 바꾸지 못하며 (3) 각 개인이 "스스로 행하며 행함을 받지 아니"(니파이후서 2:26)하는 주체자로서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충실한 부모는 불순종하는 자녀를 둔 다른 의로운 부모들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견뎌 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몰몬경에서 아버지인 리하이는 빗나간 아들들에게 주님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권했습니다. 리하이는 레이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네가 이 강을 닮아서 끊임없이 모든 의의 근원으로 흘러들기를 바라노라 하셨느니라.

또 그는 레뮤엘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오 네가 이 골짜기를

닮아서 굳건하고 변하지 않으며, 흔들림 없이 주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라노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 말을 그가 하신 것은 레이맨과 레뮤엘의 완고함 때문이었더라. 이는 보라, 그들은 …… 참으로 많은 일에 있어 그들의 부친을 거스려 불평하였음이라."(니파이전서 2:9~11)

이후 이 세상을 떠날 때조차도 리하이는 빗나간 아들들에게 "[그의] 말에 귀 기울이"(니파이후서 1:12)도록 권했습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티끌에서 일어나, 떨고 있는 부모의 말을 들으라. 너희가 곧 그의 사지를 차갑고 적막한 무덤에 뉘어야만 하나니, 그곳에서는 아무 나그네도 돌아올 수 없느니라. ……

그리고 나는 너희가 주의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여 지키기 원하노니, 보라, 이는 처음부터 나의 영혼의 근심이었도다.

나의 마음은 시시로 슬픔으로 무거워졌었나니, 이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나오사, 그의 가득한 진노 가운데 너희에게 임하시므로, 너희가 영원히 끊어져 멸망당할까 내가 두려워하였음이요, ……

오 나의 아들들아,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가 빼어나고 총애를 받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러나 보라,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니, 그의 길은 영원토록 의로움임이니라."(니파이후서 1:14, 16~17, 19)

주님의 천사는 반항적이었던 앨마 이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의 기도와, 또한 네 아비인 그 종 앨마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이는 그가 네게 관하여 곧 네가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되기를 많은 신앙으로 기도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네게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깨닫게 하여, 그 종들의 기도가 그들의 신앙에 따라 응답되게 하려는 이 목적으로 내가 왔노라."(모사이야서 27:14)

이 놀라운 경험은 천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두 번이나 언급했던 앨마의 기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충실한 부모는 하늘의 권능을 끌어내려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자녀들이 스스로 행동하며 회개할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여전히 그들의 몫입니다. 앨마 이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모사이야서 27:24 참조), 이것이 바로 빗나간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이 온 마음으로 염원하는 결과입니다.

부모가 인내하고 계속 자녀들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모범대로 살 때 그들은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이러한 부모의 결연한 의지는 구원하고 강화하는 구주의 속죄의 권능을 힘차게 증거합니다. 또한 빗나간 자녀들이 새로운 눈으로 보고, 새로운 귀로 듣도록 권하게 됩니다.(마태복음 13:43 참조)

구주의 가르침대로 행동할 때 우리 삶에 영적인 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듣고 조심하는 힘, 분별하는 힘, 꾸준히 노력하는 힘입니다. 헌신적인 제자가 되는 일이야말로 모든 문제와 시련을 극복하는 유일하고도 최선의 대답입니다. ■

주

1. Joseph Smith, *Teachings of the Prophet Joseph Smith*, comp. Joseph Fielding Smith (1938), 321; Joseph Smith, *in History of the Church*, 5:530; Brigham Young, in *Journal of Discourses*, 11:215; Lorenzo Snow, in Brian H. Stuy, comp., *Collected Discourses*, 5 vols. 참조 (1987–92), 3:364; Joseph Fielding Smith, in *Doctrines of Salvation: Sermons and Writings of Joseph Fielding Smith*, comp. Bruce R. McConkie, 3 vols. (1954–56), 2:90–91, 179, 182–83; Bruce R. McConkie, *Mormon Doctrine*, 2nd ed. (1979), 685; Spencer W. Kimball, "Ocean Currents and Family Influences," *Ensign*, Nov. 1974, 111–12; Howard W. Hunter,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 *성도의 벗*, 1984년 1월호, 94쪽; 보이드 케이 패커, "우리의 도덕 환경", *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68; 러셀 엠 넬슨, "죽음의 문", *성도의 벗*, 1992년 7월호, 73; Gordon B. Hinckley, in "Prophet Returns to 'Beloved England,'" *Church News*, Sept. 2, 1995, 4; 보이드 케이 패커, "두려워 말라",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77; 로버트 디 헤일즈, "부모의 지극한 정성을 모아: 가족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88쪽.
2. Joseph Smith, *Teachings of the Prophet Joseph Smith*, comp. Joseph Fielding Smith (1938), 321.
3. Orson F. Whitney, Conference Report, Apr. 1929, 110.
4. Joseph Smith, *The Words of Joseph Smith*, comp. Andrew F. Ehat and Lyndon W. Cook (1980), 241; emphasis added. 또한 300쪽 참조
5. 이 성구들은 사람이 선택의지를 축복으로 받은 주체자이고, 도덕적 선택의지를 행사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진다는 원리를 설명한다. 성구가 목록에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고린도후서 5:9~10; 갈라디아서 6:7~9; 모사이야서 4:30; 7:30~33; 앨마서 12:12~14; 33~35; 34:13~17; 42:24~30; 교리와 성약 6:33~34; 101:78; 모세서 7:32~33.
6. Orson F. Whitney, Conference Report, Apr. 1929, 110.
7. Alonzo A. Hinckley, in Conference Report, Oct. 1919, 161.
8. 존 케이 카먹, "우리 자녀들이 실족할 때", *리아호나*, 1999년 3월호, 28쪽 참조
9. 제임스 이 파우스트, "길 잃고 헤매는 소중한 양들",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62쪽.

짐바브웨

아름다운 땅, 신앙의 사람들

짐바브웨에서 후기 성도 교회는 계속 번영해 가고 있다.

짐바브웨의 아름다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속하는 짐바브웨 국경의 빅토리아 폭포는 세계에서 가장 넓거나 높은 규모를 자랑하지는 않지만, 수량만큼은 제일로 꼽을 수 있는 폭포라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주어 말한다. 폭이 1.6킬로미터가 넘는데, 거기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는 108미터 아래에 있는 바위 위로 곤두박질친다. 울부짖는 폭포는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켜, 우기에는 폭포 아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다.

빅토리아 폭포는 짐바브웨에 있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수많은 광경 중 하나에 불과하다. 아프리카 남동부에 있는 짐바브웨(과거 로디지아의 남부)는 국립 공원과 야생 동물, 그리고 아름다움과 문화를 체험하려는 여행자들을 전 세계 각지에서 끌어들이고 있다.

야생 동물 사파리 여행을 하거나 천둥소리를 내며 흐르는 잠베지 강에서 급류 래프팅을 하거나, 짐바브웨에서 만나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왕성하게 번져 나가는 후기 성도 교회 또한 빠뜨릴 수 없다.

짐바브웨의 교회

짐바브웨에는 23,000명이 넘는 교회 회원이 살고 있다. 지난 35년간 회원 수는 급속하게 증가했다. 하지만 1980년 이전에는 회원 수가 천여 명 정도에 불과했다.

스펜서 더블유 킴볼(1895~1985) 회장이 1978년 6월 8일에 발표한 "교회의 모든 합당한 남성 회원은 인종이나 피부색에 관계없이 신권에 성임될 수 있[다.]"(공식선언-2)는 선지자적 선언은 짐바브웨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원쪽: 사진 © CORBIS 진 뉴볼드 사진 제공

퀘퀘의 초등회 어린이들, 1965년.

짐바브웨에서 교회가 강성해지도록 수많은 후기 성도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 개척자 중 몇몇을 만나 보자.

이 시대 짐바브웨의 개척자들

허버트 헨리 하지키스

1930년대 초반, 로디지아의 남부에 선교사들이 한시적으로 파견되었다. 그러나 선교사 수는 턱없이 부족했고,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있던 선교 본부와 거리도 멀었기 때문에 1935년, 로디지아의 남부(당시 남아프리카 선교부 지역 관할이었음.)에서 모든 선교사가 철수하고 그 지역을 폐쇄하게 된다.

1950년 9월, 로디지아의 남부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다시 여덟 명의 선교사가 파견되었다. 그리고 5개월 후에 이 지역에서 첫 번째 개종자가 침례를 받았다.

1926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허버트 헨리 호지키스는 1949년에 로디지아의 남부 솔즈베리로 이주했다. 그는 당시 복음을 공부하고 있던 한 친구에게서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해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호지키스는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고, 친구에게 이 교회가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직접 나섰다. 그러나

표면

1927년: 남아프리카에서 이주한 회원의 두 아들이 로디지아의 남부에서 처음 침례 받은 회원들이다.

1930년: 남아프리카 선교부의 돈 엠 돌튼 회장이 최초로 선교사들을 새로 조직된 로디지아 지방부로 보냈다.

1935년: 돈 엠 돌튼 회장이 로디지아의 남부로 선교사를 파견하는 것을 멈추었다.

1950년: 9월에 에반 피라이트 회장이 선교사 여덟 명을 지명하여 로디지아의 남부에서 선교 사업을 다시 개시하게 했다.

1951년: 휴 호지키스는 로디지아의 남부에서 침례 받은 첫 번째 개종자이다.

짐바브웨 하라레의 후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유아 축복을 축하하고 있다, 1985년.

복음을 세심하게 알아본 후 그는 도리어 복음의 진실성에 대한 간증이 생기게 되었고,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나는 이 교회에 가입하려고 하네."[1]

호지키스는 1951년 2월 1일에 침례를 받았으며, 이것은 로디지아의 남부에서 나온 첫 번째 개종자 침례였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고 어느 곳에 가든지 친구를 사귀었다. 그런 친근한 성격으로 그는 현지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1959년에 호지키스 형제는 솔즈베리 지부의 지부 회장이 되었다. 그의 보좌들 역시 현지 회원들이었다. 지부 회장단이 현지 회원들로 구성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전에는 전임 선교사들이 지부 회장단으로 봉사했었다.

겨울 활동 모임을 하는 궤루 스테이크 청남들, 2012년. 청남과 지도자들이 옥수수를 수확한 후, 즐겁게 음식을 먹고 축구를 했다.

1959년: 진 우드는 최초의 로디지아의 남부 출신 선교사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남아프리카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1964년: 로디지아 북부는 잠비아로, 로디지아의 남부는 로디지아가 되었다.

1978년: 이 데일 르바론 회장이 최초로 로디지아 지방부 회장단을 조직했다.

1980년: 영국이 로디지아 독립을 인정했으며, 국가명이 짐바브웨로 바뀌었다.

1985년: 8월 24~25일에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성전이 헌납되었다.

어니스트 시반다

1978년 12월, 어니스트 시반다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몰몬 선교사 두 명을 만났는데, 그들은 블랙 장로와 카에린 장로였다. 선교사들은 그에게 몰몬경을 건네주었다. 선교사들을 만나기 전부터 어니스트는 이미 오랜 세월 종교를 연구해 오고 있던 참이었다. 사실 그는 자신의 교회에서 9년간 교사로 일하고, 3년간 목사직에 있기도 했다.

몰몬경을 받은 날 밤, 어니스트는 새벽 2시까지 열정적으로 그 책을 읽었다. 다음 날 선교사들을 만날 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곤혹스럽게 느껴질 정도였다. 어니스트는 자신이 만나 본 다른 성직자들에게서보다도 조셉 스미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선교사들에게 말했다. 어니스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침례를 받았고, 몇 주 후에는 아내와 자녀들도 침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은 날, 그는 이렇게 적었다. "나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모든 악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다."[2]

어니스트 시반다는 교회에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주일학교 회장, 지부 서기, 지부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했다. 또한 남아프리카 선교부 회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영문 찬송가를 쇼나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에드워드 듀브

2013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에드워드 듀브 장로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 일원으로 부름을 받음으로써 짐바브웨 출신의 첫 번째 교회 총관리 역원이 되었다. 그것은 듀브 장로와 관련된 수많은 최초의 사건 가운데 가장 최근의 일이다. 듀브 장로는 짐바브웨의 첫 번째 내국인 스테이크 회장, 첫 번째 내국인 선교부 회장, 첫 번째 내국인 지역 칠십인이었다. 듀브 장로는 의로운 지도력을 보인 참된 개척자였다.

그 모든 일에 앞서 듀브 장로에게 일어났던 또 다른 최초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처음으로 교회에 참석한 날이다. 그는 교회에 참석하기 2년 전에 후기 성도인 자신의

진 뉴볼드 사진 제공, 교회 역사 도서관 및 출판 서비스부

상사에게서 몰몬경을 받았다. 듀브 장로는 몰몬경을 읽었고, 그 안에 담긴 영향력과 힘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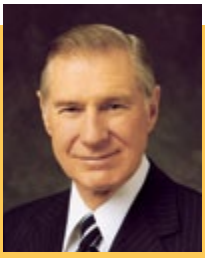
1984년 2월, 듀브 장로는 어느 지부의 금식 간증 모임에 참석해 달라는 초대를 받아들였다.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에는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곧바로 등을 돌려 나올 뻔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내 지부 회장이 일어서서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하자 기분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몰몬경에 대한 간증에 대해 듀브 장로는 공감했던 것이다. 몇몇 회원들에 이어서 듀브 장로도 일어나서 몰몬경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1994년, 비로브드 문데라 회장은 매주 일요일 모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손수레에 싣고 가족과 함께 1.6킬로미터를 걸어 교회에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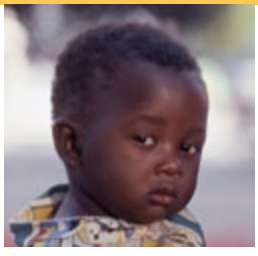
1987년: 짐바브웨 하라레 선교부가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선교부에서 분리되어 조직되다.

1991년: 10월 25일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장로가 복음 전파를 위해 짐바브웨를 헌납했다.



1994년: 교회 교육 기구가 에드워드 듀브를 짐바브웨 교회 교육 기구 대표로 고용했다. 에드워드 듀브는 짐바브웨 전역에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교실을 세웠다.

1998년: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이 짐바브웨를 방문하여 1,500여 명의 후기 성도에게 말씀을 전했다. 여러 정부 관리가 그 모임에 참석했다.



처음으로 그렇게 성찬식에 참석해 본 그는 교회에 대해 진지하게 알아보기 시작했다. 듀브 장로는 몇 달 후 침례를 받았다. 그 후 그는 짐바브웨 하라레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듀브 장로는 1989년 12월 9일에 나우메 케레시아 살리자니와 결혼했다. 이들은 네 자녀를 두었다.

듀브 장로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짐바브웨 성도들이 많은 부침을 겪는 것을 보았다. 그 모든 시기를 거치면서도 듀브 장로는 주님의 힘과 인도에 의지했다. "제 삶을 돌이켜 보며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복음은 제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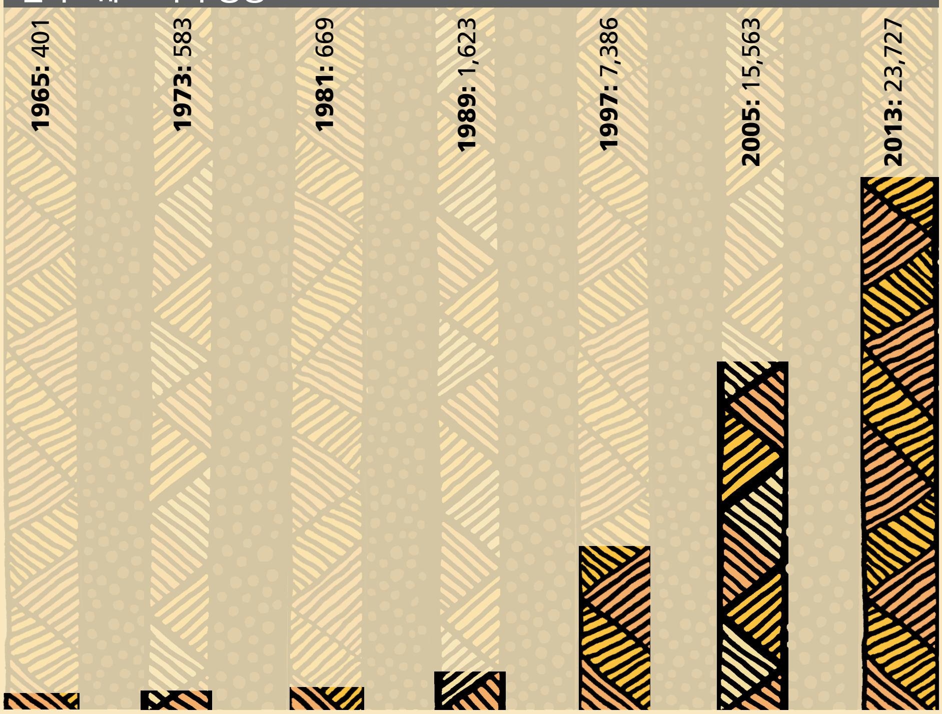
현재 영국 선교사 훈련원 원장이며, 또한 전에 칠십인으로도 봉사했던 키스 알 에드워드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듀브 장로님을 짐바브웨의 브리검 영, 혹은 윌포드 우드럽으로 생각합니다." 에드워드 회장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짐바브웨 하라레 선교부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는데, 당시 스테이크 회장이었던 듀브 장로와 폭넓게 협력했던 것이다. "듀브 장로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이 있는 분입니다."[4]

선교 사업에 매진하는 짐바브웨

복음을 더더욱 활발히 받아들이고 있는 짐바브웨에 있는 동안 에드워드 회장은 교회 성장을 직접 목격했다. "짐바브웨 사람들은 삶을 즐기죠." 에드워드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행복하고, 천성적으로 매우 영적입니다.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에드워드 회장은 선교사들이 짐바브웨

짐바브웨 교회의 성장



짐바브웨 교회 통계*

전체 회원 수: 23,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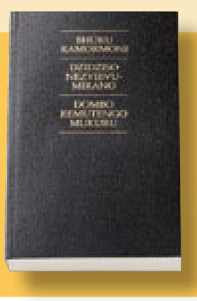
선교부: 1개

와드 및 지부: 60곳

가족 역사 센터: 4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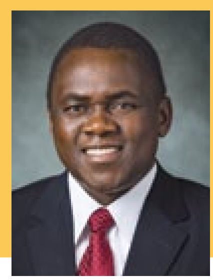
** 2013년 6월 현재*

1999년: 짐바브웨 첫 스테이크가 하라레에 조직되다. 짐바브웨의 모국어인 쇼나어로 완역된 몰몬경 초판이 출간되다.



2007년: 표준 경전 합본(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이 쇼나어로 출간되다.

2009년: 에드워드 듀브가 내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짐바브웨에서 봉사하는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받았다.



2013년: 에드워드 듀브가 칠십인 제일 정원회 일원으로 부름을 받음으로써 짐바브웨 출신으로는 최초의 교회 총관리 역원이 되었다.

사람들과 가장 쉽게 복음 토론을 시작하는 도구로서 구주의 이름이 새겨진 선교사 명찰을 꼽았다. 교회의 이름을 읽고 기분 좋아하는 지역 주민을 자주 만나 볼 수 있었다. 에드워드 회장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가까워지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짐바브웨에서는 계속해서 더 많은 미래의 지도자들과 개척자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다. "선교사들은 늘 바쁩니다." 에드워드 회장의 말이다. ■

퀘퀘 와드 지도자들과 선교사들, 2011년

주

1. 그레그 호지키스, 허버트 헨리 호지키스의 약전, 2012년 6월 26일, 짐바브웨 케이스 파일, 교회 역사 도서관, 솔트레이크시티.
2. *All are alike unto God*, ed. E. Dale LeBaron (1990), 129.
3. Edward Dube, R. Scott Lloyd, "New General Authority: Elder Edward Dube," *Church News*, Apr. 20, 2013, ldschurchnews.com.
4. 키스 알 에드워드와의 인터뷰, 2013년 4월 24일.

사진: 크레이그 다이먼드, 데릭 이스라엘선, 웰돈 케이 이 린초텐, 진 뉴볼드

흔들리지 않았다

지진의 영향으로 주님께 돌이켰을 때,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다.

레이드 타테오카
일본 센다이 선교부 전임 회장

2011년 3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46분, 일본 코리야마, 코리야마 예배당 2층. 지도력 훈련에 참석한 선교사 열다섯 명이 조셉 스미스에 관해 가르치는 연습을 막 시작했을 때였다.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가 방을 가득 채웠던 그때, 창문이 덜컹대기 시작했다. 소음이 심해졌다. 처음에는 흔들리는 수준이었던 것이 점차 쾅쾅거리기 시작했다.

건물이 좌우로 흔들렸는데, 그 속도와 강도가 점점 심해지다 마침내는 쉬지 않고 세차게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일어설 수도, 걸을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몇몇 선교사들이 탁자 아래로 피하려 했지만, 탁자들도 날아가 버렸다. 건물이며, 도시며, 아예 현 전체가 땅이 열리기라도 할 것처럼 시끄럽게 비틀거렸다. 내 마음에는 오직 한 생각밖에 없었다. '선교사들을 대피시켜야 해!'

기적적인 대피

일본 센다이 선교부 회장으로서 나는 몇 달에 걸쳐서 선교사들과 회원들에게 "주께로 돌이키[자]"(모사이야서 7:33)고 가르치고 있었다. 그 순간, 신성한 인도를 구하기 위해 나 역시 그분께로 돌이켰고, 영감이 떠올랐다. "문을 열어 탈출로를 확보하라." 나는 지붕이 내려앉으면 안에 갇혀 버릴 것이므로 그 전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서둘러서 문을

2011년 3월 지진과 쓰나미로 일본 북부의 많은 도시(미야코시를 포함, 위)가 파괴되었으며, 수천 명이 사망했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열었다. "모두 여기서 나가요!" 나는 소리쳤다.

열린 문을 향해 선교사들은 사방팔방으로 출렁이는 바닥을 비틀대며 건넜고, 계단을 타고 교회 밖으로 대피했다. 일단 밖으로 나오자,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는 안도할 수 있었다. 기온이 떨어져 추웠고, 우리 얼굴 위로 눈발이 떨어졌다.

교회 건너편에 있는 불교 신자들의 묘지도 비석들이 넘어지고 벽이 무너져 내려 돌무더기로 변해 있었다. 교회 뒤에 있는 12층 아파트 건물에도 금이 지그재그 형태로 크게 나 있었다. 근처 초등학교는 건물 벽이 부서져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다. 창문들은 날아갔고 부서진 유리 파편이 땅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도로 건너편에는 푸른 기와지붕이 산산조각 난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나는 선교사 열다섯 명을 모두 교회 주차장에 모이게 하고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계속 도움을 간구했다.

우리의 감사 기도

극심한 공포가 도시 전체에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음식 없이 지내야 할까 봐 눈에 띄는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사재기하기 시작했다. 빵과 우유가 금방 동났고, 단 몇 시간 만에 그 도시에서 빵은 그림자조차 볼 수 없게 되었다. 주유소마다 사람들이 수 킬로미터씩 길게 줄을 섰다.

거리의 사람들이 보이는 공포와는 대조적으로 선교사들은 놀랄 만큼 침착했다. 우리는 감사 기도를 드렸고,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고요한 확신을 느꼈다.

우리는 그 도시를 떠날 수가 없었다. 도로가 파괴되고 고속도로도 폐쇄되었으며, 기차나 버스도 운행되지 않았다. 휘발유를 사려고 몇 시간이고 긴 줄을 서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결국 돌아가야 했다. 정부 감독관들은 체계적으로 각 가정으로 다니며 거주 가능 여부를 파악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피소에서 밤을 보냈다.

재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제자로서

다음 날인 토요일, 우리는 평소처럼 경전 공부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날 우리는 특별히 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했다. 나는 경전 공부 후에 선교사들을 여러 조로 나눴다. 한 조는 교회로 가서 청소를 한 후에 지부 회장과 협력하여 회원들의 집을 수리하게 했다. 또 한 조는 도시 감독관을 찾아가 선교사들이 들어가기에 아파트가 안전한지 알아보게 했다. 또 다른 조에게는 기차나 버스가 운행되는지 알아보게 했다. 몇몇 선교사들에게는 줄을 서서 물을 얻어 오게 했고, 또 몇몇에게는 음식을 찾아보게 했다. 그중 두 선교사에게는 일요일 성찬 모임에서 사용할 빵을 찾아보라는 특별 임무를 주었다. 나는 온종일 선교부 내의 모든 선교사와 연락을 시도했다.

그날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느꼈다. 물을 구하려고 줄을 섰던 선교사들은 두 사람에게 복음을 나눴다.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증을 나눴고, 그 두 사람을 저녁 간증 모임과 다음 날 예배 모임에 데려왔다.

음식을 구하러 갔던 자매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길을 이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음식을 살 만한 가게가 아무 데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자매들이 평소라면 전혀 고려해 보지도 않았을, 인적 없는 골목과 구멍가게에서 음식을 구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마태복음 6:11)이 주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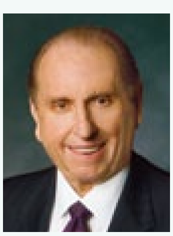
하루를 마치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를 드렸다. 우리는 초점을 잃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그의 백성 가운데 그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제3니파이 5:13)였다.

하나님 아버지의 힘과 권능, 그리고 평안

그날 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힘과 권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우리는 그분의 영과 함께해야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서 간증 모임을 열었다. 선교사들은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드렸으며, 우리가 인도를 받고 지시를 받았으며, 보호되었다는 것을 인지했다. 불행하게도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우리는 참으로 "사방으로 욱여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했다.]"(고린도후서 4:8~9)

모든 선교사가 자신이 느꼈던 평안에 대해 간증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자신들의 영혼을 달래 주셨음을 간증했다. 선교사들은 죽음의 가능성에 맞닥뜨렸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긴 기간을 버틸 만한 물과 음식, 따뜻한 거처는 없었지만, 우리는 생수로 양분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살았으며, 주님의 영으로 따뜻해졌다. 이 작은 선교사 무리 중 어느 누구도 두려움을 품지 않았다. 그날 밤 선교사들은 저마다 우리를 강화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느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그분을 가깝게 느꼈다.

그날을 마치면서 우리는 살아 있음에 감사해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매우 실질적인 방식으로 도와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렸다. 이튿날, 우리는 예배 모임을 위한 임무 지명을



시련의 목적

"기뻐할 만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또한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하는 시련을 이겨 낼 때 배우고 성장하며 강인해진다는 것을 아십니다. …… 그러한 어려움으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으로 삶을 재편하여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즉, 전보다는 더 나아지고, 더 이해력이 커지며, 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더 큰 간증이 생겨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87쪽.

액자 미술품: *그리스도와 부자인 젊은 관원의 상세 부분*, 하인리히 호프만 그림, HARRISON CONROY CO 제공, 배경: 네이트 리슈먼

단지 우리 생명을 지켜 주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신 듯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아들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셨다.

한 다음, 예배당을 떠나 대피소에 있는 수십 명의 이재민과 함께했다.

성찬 빵

하지만, 침통해하는 두 장로가 있었다. 그들은 성찬식을 위한 빵을 구하는 임무를 받았으나 결국 빵을 구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우리가 토요일 저녁에 대피소로 갔을 때, 시 공무원들이 우리를 맞아 주었다. 그들은 그 전날에 음식을 조금(크래커 20개)밖에 주지 못했던 것을 사과한 후, 활짝 웃으며 다음 날 분의 배급 음식을 건네주었다. 바로 물 한 병과 빵 여덟 조각이었다.

나를 바라보는 장로들의 눈빛이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주님께서는 어쩜 우리를 이토록 축복해 주실까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 생명을 지켜 주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신 듯 다시 손길을 내미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분의 아들을 "언제나 기억"(교리와 성약 20:77)할 수 있게 해 주셨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구주와 가까워졌다.

선교사들은 그날 밤 특별한 기도를 드렸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연달아 특별한 기적들을 베푸신 후에도 또 다른 기적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렸다.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겠다는 우리의 성약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선시하시는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매주 성찬을 취하게 해 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에 감사드렸다.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확신으로 간증했다. ■

2011년 도호쿠 지진은 오시카 반도에서 7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으며, 진도는 9.0으로, 1900년에 현대식 기록 작성을 시작한 이후 측정된 지진 중 다섯 번째로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다.[1] 지진이 발생한 지 며칠 후에 센다이의 모든 선교사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주

1. " Managing post-disaster debris: the Japan experienc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June 2012), 5, unep.org/disastersandconflicts.

태드 알
콜리스터 장로
칠십인 회장단

주님의 도덕 표준

여러 해 전에 변호사이신 제 부친은 한 소송을 맡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오래 전에 있었던 캘리포니아 대법원 소송만을 판례로 드셨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더 최근에 있었던 여러 하급 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제 부친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리스터 씨, 이보다 더 최근 판례는 없습니까?"

아버지는 판사를 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대법원에서 한 사안에 대해 판결할 때, 오직 한 번만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려도 되겠습니까?"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하위 법원 판결이 아무리 많거나 더 최근에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우선이라는 점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 표준에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행복 대부분이 결정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도덕 문제와 관련해서 단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며, 그 단 한 번의 선언은 오늘날의 심리학자, 상담자, 정치인, 친구, 부모 또는 자칭 도덕가가 말한 것이나 하급 법원의 의견보다 우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성스러운 힘, 곧 생명을 창조하는 힘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도무지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어떻게 그 힘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할 권리 역시 그분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중적인 정서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도덕 표준에는 부정적이거나 제한적인 어떠한 부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긍정적이고, 우리를 고양하며,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덕 표준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자긍심을 높이며, 깨끗한 양심을 키우고, 각 개인과 부부들이 주님의 영과 함께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하나님의 도덕 표준은 행복한 결혼과 안정된 지역 사회를 위해 입증된 표준입니다.

그렇다면 신성한 생식 능력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주님의 표준, 다시 말해 그분의 도덕

사진 삽화: 데이비드 스토커

표준이란 무엇입니까? 사실, 주님의 도덕 표준은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열거한 수많은 목록이 아니라 어떤 원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식 능력은 결혼 관계에서 이 두 가지 이유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배우자간의 유대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것. 두 번째, 전세의 영을 세상에 데려오는 것.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용을 축복하고, 지지하십니다.

반면, 생식 능력은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결혼 관계 밖에서 생식 능력을 표출하도록 자극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빚는 의식적인 생각이나 자발적인 행동을 주님께서는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오해나 모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님의 도덕 표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덕 표준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자긍심을 높이며, 깨끗한 양심을 키우고, 각 개인과 부부들이 주님의 영과 함께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사통과 간음

세상이 사통과 간음을 어떻게 여기든 간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행위를 금하십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이성과 생식 능력을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양쪽이 모두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통이고, 한쪽 또는 양쪽이 결혼했다면, 간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 곧 음란을 버리[라]"(데살로니가전서 4:3 강조체 추가)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 간음하는 자나 ……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린도전서 6:9~10 강조체 추가)

때로 사람들은 이러한 범법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때에 따라 합리화를 합니다. 코리앤톤은 창녀 이사벨과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이 한 일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듯합니다. 그의 부친인 앨마는 그 상황을 제대로 보게 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러한 일은 주가 보시기에 가증한 일[인] ……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앨마서 39:5) 요셉 또한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을 때 이 큰 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창세기 39:9).

부적절한 신체 접촉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생식 능력을 자극합니다. 따라서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에서 은밀한, 또는 신성한 부분을 그 사람이 옷을 입었건 안 입었건 간에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 표준에 어긋납니다.[1]

자위행위

주님께서는 자위행위를 책망하십니다. 자위행위는 자기 몸의 생식 능력을 자극하는 행위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사진 삽화: 매튜 라이어

회장이신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신성한 생식 기관을 함부로 만지작거리거나 장난치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 그런 행위는 주님께 달가운 일이 아니며, 여러분에게도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행위를 하면서 합당하거나 깨끗하다고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2]

동성 관계

동성 간의 육체관계에 대한 교회의 입장이 일시적인 정책일 뿐이며 영원한 교리가 아니라고 믿게끔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승영의 조건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영원한 결혼의 필요성을 가르치는 경전과 현대 선지자들의 말씀, 구원의 계획 등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동성 관계는 남편과 아내가 필멸의 세계에서 자녀를 가질 뿐만 아니라 승영에 이르러서도 영원한 증식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방침과도 상반됩니다.

따라서 결혼 관계 밖에서 생식 능력을 표출하도록 자극하는 것과, 그러한 결과를 빚는 의식적인 생각이나 자발적인 행동을 주님께서는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혹은 딸이며, 그러한 존재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지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단점을 안고 힘겨워하는데, 일부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무한한 속죄를 믿습니다. 속죄는 이 삶에서나 다가올 삶에서 결점과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모든 힘을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이더서 12:27)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1) 부도덕한 관계를 삼가고, (2) 깨끗이 하고 완전하게 하는 속죄의 힘을 힘닿는 데까지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동성애 성향은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직책에 부름을 받고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합니다.[3]

대적의 촉수

제가 언급한 죄에 앞서 나타나는 일부 위험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탄은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는 문어와 같습니다. 촉수 하나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붙잡힐 때까지 또 다른 촉수를 계속 들이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 표준을 어기게 하도록 고안된 사악한 촉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외설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어떤 식으로든 외설적인 영화나 텔레비전 쇼를 보거나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잡지를 구독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외설물이란 내면에 있는 육욕의 인간을 먹여 키우는 그림 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을 밀어내고 맙니다.

힐끗 보는 것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으며 외설물의 영향에 속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독이 있는, 맹독의, 용서를 모르는 뱀과도 같습니다. 그 뱀은 처음 눈길을 던진 그 순간에 급습해 오며, 이후 그쪽으로 눈을 돌릴 때마다 달려들어 독액을 모조리 쏟아 넣습니다.

만일 이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를 극복하고자 온 힘을 다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고백과 열렬한 기도, 금식, 경전에 몰입, 나태하게 보내던 시간을 건설적으로 바꾸고, 인터넷 사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며, 전문가 상담 등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그 병을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의지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중독을 해결할 약이나 상담 기법이란 없습니다.

단정치 못한 의상

우리가 입는 옷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각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디모데전서 2:9)고 권고한 것입니다.

여성의 옷은 남성의 마음과 격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옷을 지나치게 내려 입거나 올려 입거나, 과하게 꼭 끼게 입는다면, 순수하고자 노력하는 청남의 마음에 부적절한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4]

남성과 여성 모두 멋지고 최신 유행에 맞게 보이면서도 정숙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정숙한 옷차림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고, 남성의 도덕적 순결에도 공헌합니다. 결국에는 대부분의 여성이 자신이 입는 옷에 걸맞은 그런 유형의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부정한 생각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옆으로 날아가는 새들을 볼 수는 있겠으나 네 머리에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지나가는 예쁜 아가씨나 잘생긴 청년에게 눈길이 가는 것은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욕정으로 바뀐다면, 둥지가 지어져 버린 것입니다.

부적절한 광고판이나 정숙하지 못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부적절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몰아낼 수는 있습니다. 부적절한 무언가를 본의 아니게 보게 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마음에 품는 것은 죄입니다. 경전은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잠언 23:7).

욕정은 불순종, 자기만족, 규율의 부족에서 나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하는 행동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생활과 생각을 제어할 힘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공존하지 못하듯이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초대 손님으로 할지, 언젠가는 결정해야 합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악한 생각을 몰아내고 곧바로 마음을 고양하는 노래나 시나 성구로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빛 앞에서 어둠이 달아나듯, 선 앞에서 악은 달아납니다.

은밀한 장소와 유혹하는 친구들

우리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저항력이 약해지는 시간과 장소는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남성과 여성들도 최악의 환경에서 타락했습니다. 바로 다윗왕이 그랬습니다. 밤에 밧세바를 보았는데, 처음에는 일견 안전해 보이는 거리를 두고 보았습니다.(사무엘하 11:2~4 참조) 그 누구도 자신이 아주 강하다고, 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밀한 장소, 늦은 밤, 도덕적으로 느슨한 친구들은 우리를 사탄의 손아귀로 이끌어 가는 자기장입니다.

합리화

도덕적 일탈을 옹호하기 위해 두 가지 합리화가 반복되어 흔히 사용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전 그녀를 사랑했어요." 사탄은 위조에 뛰어납니다. 욕정이 사랑인 것처럼 속여 넘기려고 합니다. 그 차이를 간파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절제, 하나님의 도덕 율법에 대한 순종, 타인을 향한 존중, 비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반면 욕정은 불순종, 자기만족, 규율의 부족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합리화는 "아무도 모를 거야."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그 신화가 거짓임을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거역하는 자는 많은 슬픔으로 찔림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의 죄악이 지붕 위에서 이야기되고 그들의 은밀한 행위가 드러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1:3 강조체 추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아주 어두운 들녘이나 외딴 구석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덕 율법을 어길 때, 그분은 그것을 아시며, 여러분도 그것을 압니다.

회개

삶에서 도덕적인 실수를 범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기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싶다면, 맨 처음 기본 단계로 과거의 범법을 회개하며, 모래로 된 기초를 걷어 내고 반석으로 기초를 쌓아야 합니다. 그것은 흔히 고백과 함께 시작됩니다.

하지만 회개란 단지 시간의 문제라거나 죄를 버리고 고백하는 것에 관한 일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회개는 정직한 마음의 변화이며, 그렇게 해야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어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겠다고 불타는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표준을 범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를 반드시 겪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무한한 사랑과 동정심으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희망을 주십니다.

"무릇 나 주는 죄를 털끝만큼도 묵과할 수 없느니라. *그러할지라도 회개하고* 주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용서받으리라.*"(교리와 성약 1:31~32 강조체 추가)

그분께서는 마음을 바꾸고 죄를 버리는 모든 정직한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이사야 1:18).

그러나 죄를 짓고 회개를 하는 것보다는 늘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이나 혼외 자식, 또는 불명예 등 죄에 따른 불운한 결과가 회개 후에도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단순히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을 추구하는 과정은 우리가 깨끗할 때 가속화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좌절됩니다.

앨마는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라고]"(앨마서 41:10)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도덕 율법을 어기고도 벌을 받지 않고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후, 우리의 영혼에 양심으로 알려진 도덕적 나침반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도덕 표준을 어긴다면, 양심이 작동하여 우리 마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며, 죄책감과 회한을 불러일으키고 그 표준의 진실함을 증거하는 신성한 증인으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양심을 무시하거나 억누를 수는 있을 테지만, 양심을 피해 달아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덕 표준은 묵살할 수 없습니다. 희석하거나 타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덕 표준에 대항하여 싸우든 기꺼이 받아들이든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삶의 행복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사랑은 자기 절제, 하나님의 도덕 율법에 대한 순종, 타인을 향한 존중, 비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도덕적 생활의 축복

깨끗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 때 따르는 축복은 엄청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자신감과 자긍심이 생겨납니다. 양심이 맑아집니다. 순결함을 지닌 배우자를 맞을 자격을 갖게 되며, 결혼 관계에서 생식 능력의 표출이 더욱 감미롭고 더욱 보람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승인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잘 참고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몹시 사랑하시며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후기에 살아갈 자녀들을 위해 그분의 뜻을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의롭게 나를 섬길 순결한 백성을 일으킬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100:16)

우리 각자가 그 순수한 세대의 일부가 되어 주님의 도덕 표준을 받아들이기를 기원합니다. ■

2013년 1월 22일,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에서 전한 영적 말씀에서 발췌 영어로 된 전문은 web.byui.edu/devotionalsandspeeches에서 볼 수 있다.

주

1. 리차드 지 스코트, "의의 권세", *성도의 벗*, 1999년 1월호, 69쪽.
2. Boyd K. Packer, *To Young Men Only* (1976), 4, 5.
3.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21.4.6 참조.
4. 댈린 에이치 옥스, "외설물",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90쪽.

사진 삽화: 데니스 레버 버드

저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 해 전에 칠레 산티아고 성전에서 성전 봉사자로 봉사할 때 일이다. 어느 저녁에 나는 봉사 시간에 호흡 곤란을 느껴서 마지못해 일찍 귀가하게 되었다.

전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집에 빨리 갈 수 있도록 전철을 곧바로 타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했다. 그리고 승강장에 멈춰 있는 전철을 보았을 때, 나는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했다. 전철을 향해 가는데, 심장 발작을 일으킨 듯한 승객을 도우려고 역무원이 급히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가 마음에 떠올랐다.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1] 당장 도와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역무원이 그 승객을 데리고 나가 구급차를 기다리는데, 그들은 나도 그곳에 함께 있게 해 주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자 기도했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청년을 살려 주실 것을 간청했다. 청년이 홀로 두려움 속에 떨고 있게 하고 싶지 않았기에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안정을 찾도록 도왔다. 나는 그 청년에게 앞으로 살아야 할 날들이 많이 남아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며 청년을 진정시켰다. 나는 청년의 가족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전화로 그들의 아들은 지금 병원에 가는 길이며 내가 함께 있어 주고 있다고 알렸다.

구급 요원이 도착했을 때, 나도 그들을 따라 구급차로 갔다. 청년의 가족이 올 때까지 그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 놀랍게도, 구급 요원들 역시 내가 함께 가야 한다고 판단했고, 나는 병원에 가는 동안 줄곧 청년의 손을 잡아 주었다.

도착 즉시 청년은 응급실로 옮겨졌고, 나는 밖으로 나가 그의 가족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청년의 가족들이 도착했다. 청년의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나를 껴안았고, 아직도 세상에 선한 사람이 있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일주일 후, 청년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왔다. 청년은 자기가 병원에 오기 전에 안정을 취했기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의사의 말을 전해 주었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는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가 이렇게 외쳤을 때 나는 말문이 막혀 버렸다. "당신이 저를 살렸어요, 영원토록 감사할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그날 성전에서 일찍 나왔을 때, 주님의 영은 나를 내가 있어야 할 시간과 장소로 인도해 주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고 찬송가 가사처럼 행할 용기를 주셔서, 비록 내가 한 것이라곤 낯선 사람의 손을 잡아 준 것이 전부였지만, 그 기회를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드린다. ■

칼라 소피아 가비디아, 캐나다 온타리오

주

1.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 찬송가, 182장.

청년이 홀로 두려움 속에 떨고 있게 하고 싶지 않았기에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안정을 찾도록 도왔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나였다

몇 년 전, 낡아 빠진 자동차 한 대가 우리 집회소 주차장에 나타났다. 홀로 네 아이를 키우는 한 아버지의 차였다. 그는 도움을 청하려고 왔다. 우리 와드는 그 가족을 위해 살 곳을 마련해 주었고, 그 아버지는 가족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옷이 깨끗할 때도 있고 더러울 때도 있었지만, 머리는 늘 지저분했다. 머리카락이 얼마나 엉켜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다. 초등회 회장님은 매주 엉킴 방지 스프레이와 빗을 가져왔다. 회장님과 교사 한 명이 초등회에 앞서 아이들의 머리를 다듬어 주셨다.

나는 초등회 회장단 보좌였으며, 지저분한 이 아이들을 포용하는 두 자매님의 능력을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나는 그 아이들의 머리를 만질 엄두가 나지 않았기에, 자매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의아하기만 했다. 자매님들이 그러는 동안 나머지 아이들을 돌보면서 도우면 된다고 생각하며, 나는 불편한 마음을 다스려 보려 했다.

그 가족의 막내는 세 살이었다. 그 아이는 또박또박하게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큰 소리로 따라 부르려고 했다. 나는 그 소리가 거슬렸다.

세 살 난 아이들은 집중하는 시간이 짧다. 그래서 나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 아이를 무릎에 앉히기 시작했다. 아이는 고마워하며 내게 방긋 웃어 보였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인 이 지저분한 아이를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기 시작했다. 마침내, 나는 더러움을 개의치 않고서 빗을 들어 아이의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져 주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노래 부르려는 그 아이의 목소리까지도 예쁘게 들렸다.

몇 달 후, 그 아버지는 간증 모임에서 자기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그다음 주부터는 그 가족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그 아이들을 돌볼 기회가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 처음에 그들을 만났을 때에는 그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로만 보였는데, 사실 나야말로 변화하기 위해 그들의 도움이 필요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

다이앤 해치, 미국 애리조나

아이들은 옷이 깨끗할 때도 있고 더러울 때도 있었지만, 머리는 늘 지저분했다.

삽화: 브래들리 클락

감독님이 주신 생일 선물

내 생일이었던 어느 일요일 아침, 남편과 함께 교회에 갈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울렸다. 감독님의 전화였다. "오늘이 생일이시죠? 30분 후에 감독실에서 뵐 수 있을까요? 자매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궁금해하며 교회로 서둘러 갔다.

감독실에서 감독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크루즈 자매님, 생일 선물이 있어요. 주님은 자매님이 청녀 회장으로 봉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부름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벅차게 느껴졌지만, 어쨌든 나는 그 부름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날 지지를 받고 성별되었다.

교회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나는 침대에 앉았다. 책임의 무게감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울음을 터트렸고,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기분을 느꼈다. 청녀들을 이끄는 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인가! 나는 22세에 침례를 받았기에 청녀 활동에는 전혀 참여해 본 적이 없었다. 내가 어떻게 청녀 회장이 될 수 있었을까?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새로운 부름에 대해 인도를 구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 청녀들을 한 사람씩 마음속에 그려 보면서 그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딸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청녀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회장이 필요했다. (만나 본 적도 없는) 활동이 저조한 청녀들의 이름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나는 그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며, 내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청녀들 각각의 잠재력이 느껴졌다.

그 후로 보낸 몇 달이 쉬웠던 것은 아니다. 나는 청녀 개개인을 알아 가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우리 회장단은 활동적인 청녀들과 함께 활동이 저조한 청녀들이 활동화되도록 도왔다. 나는 주님의 손이 여러모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다.

부름에서 해임되었을 때,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마음에 걸렸다. 집에 도착한 후에 나는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봉사가 그분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었는지를 여쭈었다. 나는 그분께서 기뻐하신다는 좋은 느낌을 받았다.

내가 맡고 있던 다른 책임들 때문에 부름을 거절할 수도 있었던 그 생일날을 생각해 보았다. 그 부름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가장 많이 잃었을 사람은 나였을 것이다. 겸손을 배우고, 이해가 깊어지고, 인내심을 키우고, 주님의 손의 도구가 될 기회를 잃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신뢰를 헛되게 했을 것이며, 봉사하는 기회가 은사임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

마리아나 크루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감독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크루즈 자매님, 생일 선물이 있어요."

할머니는 사랑이 필요하단다

나는 그다지 인상적인 십 대가 아니었으며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 당시 엄마는 요양원에 계신 고모할머니를 함께 방문하자고 하셨다.

사촌 언니와 조카인 스테파니도 우리와 동행했다. 스테파니는 당시 일곱 살이나 여덟 살 정도였다. 요양원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스테파니는 보이는 모든 사람에게 손을 흔들었다. 사람들은 마치 스테파니가 햇살과 무지개를 나눠 주기라도 하는 듯 환히 웃어 보였다. 반면,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느라 바빴다.

고모할머니가 또 다른 할머니와 함께 사용하는 방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다. 한편, 스테파니는 침대에 뛰어올라 온갖 이야기로 고모할머니를 즐겁게 해 드렸다.

그 방에서 뭔가가 내 눈에 들어왔다. 고모할머니 쪽에는 사랑과 가족들의 흔적이 있었다. 사진들과 크레용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침대 옆 탁자는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하지만 방의 다른 쪽은 아무것도 없이 적적했다. 방문객의 흔적도, 카드나 벽에 걸린 사진 같은 것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고모할머니와 한방을 쓰는 할머니는 휠체어에 홀로 앉아서 우리가 와 있다는 것도 모른 척 하고 계셨다. 할머니는 휠체어 손잡이를 두드리며 그 박자에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그 소리는 듣기가 거북했다.

스테파니는 자기 엄마의 팔을 당기며 물었다. "엄마, 저 할머니는 왜 저러시는 거예요?" 스테파니의 엄마는 몸을 숙이고 이렇게 속삭였다. "저분은 사랑이 필요하시단다." 그때 내가 전혀 상상도 해 보지 못한 광경이 벌어졌다.

스테파니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그 할머니의 무릎에 뛰어올랐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계속 이것저것을 여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스테파니를 안으며 눈물을 흘리셨다. 스테파니는 몇 분간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할머니 머리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이타적인 사랑에 나는 터져 나오는 눈물을 감추려고 애를 써야 했다. 방문을 마치고 요양원을 나오면서, 나는 어린 스테파니에게 경이로움을 느꼈다. 어떻게 그렇게 이타적이고, 사랑으로 가득한 연민을 낯선 사람에게 보일 수 있었을까?

결국 나는 생활을 바꾸었고,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선교 사업 동안에도 스테파니는 요양원의 고모할머니 방에 있던 것과 같은 그림을 그려 넣은 귀여운 편지들을 보내왔다.

선교 사업에서 귀환하기 전에 나는 스테파니가 병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아직도 그렇게 일찍 꺼져 버린 그 빛을 생각하면 울음이 터져 나오지만, 나는 스테파니가 보여 주었던 그 모범에 감사한다. 스테파니는 봉사가 진정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봉사를 해야 할지, 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 마음이 올바른 곳에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곧 봉사가 되고, 봉사는 우리의 일부가 될 것이다. ■

제이 맥파랜드, 미국 유타

스테파니는 자기 엄마의 팔을 당기며 물었다. "엄마, 저 할머니는 왜 저러시는 거예요?"

성공을 거두기 위해

리차드 엠 롬니
교회 잡지

단순히 사람들에게 복음에 관심이 있는지 묻는 것만으로도 구원 사업을 서두르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

복음을 나누는 일은 종종 초대나 질문을 하거나 대화에 참여하는 것만큼이나 간단하다. 복음을 나누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한다면, 주님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2013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주께서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방편을 수도 없이 준비해 주셨으며, 우리가 주님의 일을 완수하고자 충실하게 노력하면,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1]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할리가 도난당한 제 자전거를 갖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어디서 그 자전거를 얻게 되셨죠?"라고 물었습니다.
— 닉 바튼

자전거를 되찾다

닉 바튼과 그의 아내 모건은 닉이 법대를 다니게 될 미국 애리조나로 이사했고 그들은 선교 사업을 할 기회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닉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신의 음성에 더 민감해지고 받은 영감을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모건이 차를 타고 출근해야 했으므로 닉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갔다. 하지만 귀가할 때쯤 자전거가 사라지고 없었다.

"자전거 도난이 워낙 흔한 일이라 경찰은 자전거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아내가 자전거 핸들에 '사랑해요.'라고 쓰인 스티커를 붙여 놓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한 번 닉은 기도했다. "저는 그 상황에서 뭔가를 배우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 후 닉은 전차를 타고 최대한 집 근처까지 가서 아내에게 데리러 오라고 전화하려 했다.

"다음 정거장에서 야구 모자를 거꾸로 쓴 몸집 큰 남자가 제 자전거를 끌고 전차에 타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해요'라는 문구가 핸들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는 제 것인 줄 알아보았죠." 닉은 그 남자의 어깨를 툭 쳤다.

삽화: 제이 버스 챔슨

"저는 '어디서 그 자전거를 얻게 되셨죠?'라고 물었고 그는 '저기 벼룩시장에서요.'라고 답했습니다." 닉은 자신의 자전거가 도난당했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 젊은이는 자신은 도둑이 아니라고 말하며 닉에게 자전거를 도로 가져가라고 말했다.

"저는 그에게 감사하다고 했고, 경찰에게 그에게 전화하도록 요청해서 그 '벼룩시장'을 조사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이 할리라고 했고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죠. 저는 그에게 벼룩시장에서 자전거를 구입했던 비용을 절반씩 나누자고 했습니다. 우리 둘 다 피해자이니까요. 저는 자전거를 되찾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호기심이 일어 저는 다음 날 아침에 할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이 말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 그는 아내와 제가 그날 오후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가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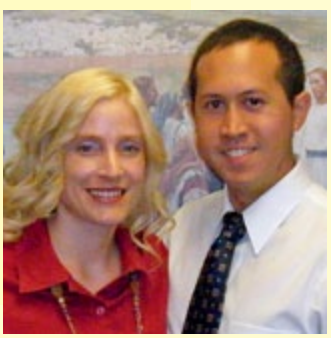
그래서 오늘은 일요일이니 교회에 갈 예정이고, 다음에 언제 함께 만나면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는 지금이야말로 선교 사업을 할 기회라는 분명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해서 함께 교회에 가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모임에 다 참석했고, 나중에 연사들과 교사들이 말할 때 자신에게 직접 말하는 것 같이 느꼈다는 말도 해 주었습니다.

할리의 가족은 외국에 있었고, 할리는 우리와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의 친구가 되었으며, 우리 교회에 대해 존중하는 감정이 생겼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약사 보조원에게 말을 걸다

애리조나에 사는 한나 로하우저는 이렇게 말한다. "어느 날 연차 대회 말씀을 듣고 난 후, 한 가게의 약사 보조원에게 말을 건네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그는 선한 사람이야. 교회 활동에 가자고 초대해야 해.'라는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다음에 드라이브 스루(차에 탄 채로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은행 등--옮긴이)에서 기다리던 한나는 그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성신의 속삭임이 느껴지고



"교회에 다니세요?" 제가 묻자 그렉은 그렇다고 대답했고 저는 제 명함을 건네주며 "전화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 한나 로하우저

"무엇을 믿으십니까?" 노먼이 제게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 로버트 지 엘리스 2세

있었다.

"몇 주 후, 저는 다시 들렀고 그를 찾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아 저는 에두르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죠. '교회에 다니세요?' 제가 묻자 그는 놀란 표정으로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렇다고 답했어요. 저는 제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전화 주세요.'라고 말한 후 나왔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내 할 일은 한 거야.' '이제 더는 그 느낌이 생각나지 않겠지.'"

놀랍게도 그는 다음 날 전화를 걸어왔고, 자신은 그렉 아이즐린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나중에 우리 둘 다 젊고 독신이라 제가 데이트 신청을 하려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세 시간 동안 종교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는 교회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죠." 현재 아이즐린 장로는 미국 몬태나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운전원에게 물어보라

스물여섯 살인 로버트 지 엘리스 2세는 미국 워싱턴 디시의 상원 사무실 건물에서 경찰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꽤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 배운 것을 생각했죠.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지 않으셨지만 제가 교회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종파를 접해 보았어요." 이제 막 결혼한 이 젊은이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어떤 교회에서 받아야 하는가?

"영혼이 심란했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를 찾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했지만 다른 종파는 틀렸다고 주저 없이 말했죠. 저는 '침례 받고 싶지만 어느 교회에 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7)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로버트는 계속 간구했다. 어느 날, 근무 중이던 로버트는 또다시 마음이 심란했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저는 두려웠고 제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평화로운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엘리베이터 담당자에게 가서 '어느 교회에 나가세요?'라고 물었습니다."

그 직원의 이름은 노먼 맥스필드였으며 조지타운 대학교에 다니는 귀환 선교사였다.

"그는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전 몰몬이에요. 왜 그러시죠?'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침례를 받고 싶지만 어떤 교회에 나가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믿으십니까?'라고 물었고

저는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했죠.

그는 '제가 다니는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해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상에 회복되었다고 말했을 때, 저는 제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특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1977년이었다. 현재 엘리스 형제 부부는 미국 버지니아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

주님께 의지함

십이사도 정원회의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에나 …… 하나님의 증인'(모사이야서 18:9)으로 서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도록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진실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일어날 것입니다."[2]

닉, 한나, 그렉, 로버트, 노먼 모두 옥스 장로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연차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4쪽.
2. 댈린 에이치 옥스, "복음을 나눔",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9쪽.
3. 러셀 엠 넬슨 장로, "선교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18~21쪽.

복음을 나누기 위한 열 가지 제안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 배워 보도록 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이 열 가지 제안으로 시작해 보자.

1. ***대화를 시작한다.*** 서로 소개를 한 후에는 여러분이 교회 회원임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후기 성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몰몬이라고 알고 있죠." 라고 간단히 말하는 것이 첫 걸음이기도 하다.
2. ***여행 중에 말을 건다.*** 버스나 비행기에서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이나 휴양지에서 만난 다른 가족들에게 말을 건넨다. 어떤 남성은 택시 운전사에게 그의 가족에 대해 물어본 후 가정의 밤에 대해 토론한다고 한다.
3. ***친구에게 Mormon.org를 소개한다.*** 이 웹사이트는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더 알아보는 데 안성맞춤이다.
4. ***친구들에게 전임 선교사와 온라인상으로, 혹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라고 권유한다.*** Mormon.org에서 사람들은 선교사들과 대화할 수 있다. 물론 언제나 여러분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사람들을 소개할 수 있다.
5.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다.*** 교회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좋아한다고 표시하거나 콘텐츠를 공유할 기회를 주는데, 이러한 콘텐츠에는 밈(온라인 상에서 공유되는, 인용문과 이미지가 복합된 것), 인용문, 비디오 등이 있다. 해시태그(트위터에서 #이 붙은 단어나 문구) 또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온라인 대화를 팔로잉할 수 있게 해 준다.
6. ***비디오를 공유한다.*** Mormon.org와 biblevideos.lds.org의 비디오를 숙지한다. 친구들과 함께 보거나 링크를 공유한다. 또한 몰몬 메시지를 언급한다. 이것은 살면서 생기는 질문들에 영감 어린 대답을 준다.
7. ***카드와 포스터를 나눈다.*** 전도용 카드와 포스터는 영감 어린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게 해 준다. (예를 들어 *리아호나* 2013년 10월호 71쪽에 있는 카드를 참조한다.)
8. ***선교사들에게 물어본다.*** 친구들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가 말씀한 "선교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를 읽어 보도록 권유한다.[3]
9. ***성전 일반 공개에 참석한다.*** 사람들에게 성전 헌납식 전에 일반 공개에 참석하는 것이 놀라운 기회라는 것을 알려 준다. 그들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한다.
10. ***돌아온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는 저활동 회원들에게 선교사로서 봉사할 훌륭한 기회가 있다. 저활동 회원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다른 사람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학대에서 비롯된 비극적인 상처를

치유하며

학대에서 비롯된 상처가 남을 수는 있지만, 그 흉터를 영원히 남겨 둘 필요는 없습니다.

학대라는 흉측한 죄로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을 통해 치유되지 않는다면, 정신적, 신체적, 혹은 성적 학대는 여러분에게 심각하고 지속적인 결과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피해자로서 그러한 학대 중 일부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에는 공포심, 우울증, 죄책감, 자기혐오, 자긍심 파괴, 정상적이지 못한 대인 관계 등이 포함됩니다. 계속된 학대로 사태가 악화될 때에는 반항, 분노, 증오의 감정이 강력하게 생성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종종 자신이나 타인 또는 인생 자체,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께 저항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집니다. 불의에 저항하려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때, 마약 남용, 성적인 문란, 가출,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비극적인 자살로까지 치닫게 됩니다.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감정은 실의에 찬 삶,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결혼 생활, 나아가서는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모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생기는 무서운 결과 가운데 하나는 점차 타인에 대한 신뢰가 결핍되는 것으로, 이는 치유에 장애가 됩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 여러분은 영원한 율법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학대는 여러분의 자유를 타인이 부당하게 침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는 선택의지가 있으므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일시적으로 여러분의 자유를 속박합니다. 주님은 공의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즉 여러분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여러분에게 저지른 파괴적인 결과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구원은 신권의 도움을 받고, 또한 영원한 진리를 따를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의 사악한 선택들이 여러분의 선택의지를 완전히 파멸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행위로 고통과 고뇌와 신체적인 해악까지도 겪게 될지 모르나 짧지만 중요한 이 지상 생활에서 여러분이 발휘할 수 있는 영원한 가능성은 없애지 못합니다. *학대에서 비롯된 유해한 결과를 극복할 선택의지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 삶을 선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율법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한, 어느 누구도 그 절대적인 기회를 탈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과 주님의 속죄가 있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을 쥔 사람, 또는 여러분을 지배하는 사람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함정에 빠져 탈출할 수 없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불의한 영향력에, 보복의 위협에, 학대를 가하는 가족이 무슨 일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같은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주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6, 이노스서 1:15, 모로나이서 7:26, 교리와 성약 8:10, 18:18 참조)

다른 사람들의 폭행, 성도착, 또는 근친상간 등의 행동이 여러분의 의사에 반하여 일어나 여러분에게 심각한 상처를 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죄의식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숙하게 간증합니다. 학대에서 비롯된 상처가 남을 수는 있지만, 그 흉터를 영원히 남겨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한 영속적인 상처들도 여러분이 구원의 계획 안에서 해야 할 바를 다 한다면, 주님이 정하신 시각에 치유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을 구하십시오

학대를 받고 있거나 과거에 학대를 받은 적이 있다면 바로 지금 도움을 구하십시오. 사람들을 믿을 수 없고, 또 믿고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받는 아들이신 여러분의 구주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들의 계명을 이해하고 따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분들은 여러분을 강화하고 격려해 줄 사람들에게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권 지도자, 일반적으로는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단 일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더 잘 이해해 주고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한, 인간은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신권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년], 109쪽)

감독님이나 지부 회장에게 여러분의 비밀을 말씀드리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돕기 위한 주님의 도구로 쓰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치유시킬 교리적인 토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율법을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감독님은 여러분을 위해 영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신권을 사용하여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지해 줄 믿을 만한 친구들을 찾도록 감독님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자신감과 자존감을 되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극단적인 학대를 겪었다면, 감독님은 여러분이 구주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적절한 보호책과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치유의 원리

여러분의 이해력을 높여 줄 몇몇 치유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인식하십시오. 그분은 완전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지상의 부모, 배우자, 혹은 헌신적인 친구도 줄 수 없는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르침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가장 훌륭한 의사십니다.

경전을 상고함으로써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정에 대한 신뢰를 쌓으십시오. 니파이인들에게 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측은히 여김이요, 나의 심정이 자비로 충만함이라. …… 이는 너희의 신앙이 내가 너희를 고치기에 족한 줄 내가 앎이니라."(제3니파이 17:7~8)

최선의 치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진실한 기도로 시작됩니다. 선택의지를 그렇게 사용한다면, 신성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은 구주의 사랑을 통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변모시키는 학대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역경은 비록 육체적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는 이들이 고의로 저지른 것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영원한 원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성장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22:7 참조)

피해자로서 자신을 학대한 사람에게 복수나 보복을 하겠다는 헛된 노력을 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자신의 책임에 집중하십시오. 범죄자를 처리하는 일은 사법 당국과 교회에 맡기십시오. 어떤 일을 저질렀든, 결국 죄인은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는 학대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자신과 같이 타락의 길을 따르도록 유혹하여 자신의 퇴폐적인 삶을 정당화하는 약탈자들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마태복음 18:6).

치유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이해하십시오. 일반적으로 회복은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개선될 때마다 주님께 감사를 돌린다면,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용서

대수술 후 오랜 회복기를 보내는 환자는 간호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완전하게 회복될 날을 기대합니다. 의사의 처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순응한다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따라서 학대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분투하는 과정은 여러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을 용서하기란 더더욱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비판을 자제함으로써 시작하십시오.* 학대자들도 한때는 무고한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회개로 가는 길은 그들에게도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를 처리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십시오. 자신의 고통이 완화되고 있음을 느낄 때, 좀 더 쉽게 가해자를 깨끗이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행해진 일을 지워 버릴 수는 없겠지만,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64:10 참조) 용서는 처참하고 비극적인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미움이란 독성을 말끔히 없애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복수심을 정화시킵니다. 용서는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사랑을 심어 줍니다.

주님은 권고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업신여겨 이용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제3니파이 12:44; 강조체 추가)

비통해하고 증오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그것들은 파괴를 양산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열망하는 구원과 치유를 더디게 합니다. 자기 합리화와 자기 연민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분과 같은 심판을 할 수 없습니다.

학대 경험을 잊어버리라는 조언을 듣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치유를 가져오는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치유 과정은 사려 깊은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 또는 현명한 전문 상담가와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다면, 혼자서 다리를 고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심각한 학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를 시작하기 위한 방법이 많이 있지만, 완전한 치유는 구주요 구속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노력한다면, 주님의 완전하고도 영원하며 무한한 속죄를 통해 학대로 빚어진 고통이 치유될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비록 당장은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머지않아 여러분은 구주께서 주실 수 있는 치유를 통해 가해자를 진심으로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부추겨 가해자를 증오하며 살아가도록 이끌겠지만,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한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더 큰 평화가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용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고통일 뿐이라면, 삶에서 구주의 치유하는 힘을 더 많이 경험할 때까지 그 단계를 미루시기 바랍니다.

주의

유익보다는 오히려 해를 더 가져올지도 모를 다음 두 가지 치료법에는 관여하지 마시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그것은 첫째, 자신의 과거 경험에 관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지나치게 조사하는 것, 특히 단체 토론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 둘째,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려운 부분이 모두 그 가해자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학대가 남긴 피해를 만회하는 일은 신뢰받는 신권 지도자와 함께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필요하다면 신권 지도자가 추천하는 자격있는 전문가와 더불어 이뤄져야 합니다. 학대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만 적절한 조언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더 많은 폭력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의 도움을 받아 과거를 잊어버리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진실함을 겸손하게 간증합니다. 이는 제가 알기에 주님께서 사악한 학대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활용하셨던 영원한 원리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한 가닥 희망밖에 남지 않았다고 느끼신다면, 저를 믿어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한 가닥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 이어지는 끊어지지 않는 연결 고리가 되어서 여러분을 구해 줄 것입니다. 두려워하기를 그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그분을 신뢰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몰몬서 9:27, 모로나이서 7:26, 33 참조) 지금 여러분의 감독님께 말씀드리겠다고 결정하십시오. 학대의 상처로 어두워진 안경을 통해 생활의 모든 일을 바라보지는 마십시오. 삶에는 아름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창문을 열고 구주의 사랑을 맞아들이십시오. 극도로 고통스러운 생각들이 되살아나면, 구주의 사랑과 치유의 권능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낙담은 평화와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고뇌의 장을 덮고 행복이라는 새 책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

구속주께서 주실 수 있는 치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가 1994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전한 말씀인 "병 고침을 받음"에서 찾아 참조하십시오.

스코트 장로의 1992년 4월과 2008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대문자, 구두점은 현대 어법에 맞게 수정함.

청결한 마음과 깨끗한 몸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 준비하며 …… 그러하도다, 너희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게 하[라]"(교리와 성약 88:74)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적의 영토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1] 참으로, 충실한 후기 성도들의 도덕 표준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탄과 인터넷과 세상이 여러분의 머리나 마음에 불어넣으려는 불결하거나 음란한 생각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거의 매일, 새벽 5시가 되기도 전에 솔트레이크 성전 문 앞에는 침례탕에 들어갈 준비가 된 합당한 청소년들이 어둠 속에서 줄을 섭니다. 그들은 세상의 어둠에서 성전의 빛 안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흰 옷을 입은 후, 조용히 웅장한 침례반으로 나아가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반의 맑고 상쾌한 물에 잠겼다 나오면서,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한 영원한 사업에 참여했음을 아는 데서 오는 뿌듯함으로 강화됩니다.

서둘러 등교하려고 바깥의 어둠 속으로 다시 나가지만, 그들은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권능과 영광으로 무장하고 성전을 나서기 때문입니다.(교리와 성약 109:22~23 참조) 성전의 빛과 정결함을 마음에 품은 이 청소년들은 이제 "적의 영토"의 어둠을 밀어내고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광경은 솔트레이크 성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런 광경은 세계 각지의 청소년들이 적의 영토에 드리운 어둠을 떠나 합당하게 살며 성전의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함에 따라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일례로, 미국 콜로라도에 사는 한 남매는 지난 한 해 동안 50명 이상의 조상들을 위해 대리 침례를 받았으며 성전의 순수함을 경험했습니다. 남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으면 좋은 느낌, 영적인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유혹을 받을 때 그 느낌을 떠올리면 도움이 되겠죠."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누나는 일지에 유혹을 받을 때 해야 할

사진 삽화: 매튜 라이어

닐 에프 매리엇
본부 청녀 회장단
제2보좌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나열했습니다. 그녀는 결심을 확고히 한 후, 그 목록을 부모님과 친구들에게도 보여 주어 자신을 도와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두 청소년은 마음과 정신과 몸을 지켜 줄 굳센 도덕적 갑옷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한 행동과 더불어, 여러분은 깨끗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시편의 저자 다윗은 시편 139편 23~24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이 성구와 관련하여 로렌조 스노우(1814~1901) 회장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의 이 기도를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권고합니다. …… 많은 이들이 이같이 탁월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을 전능자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 행동을 …… 몰래 저지르기 때문입니다."[2]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은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분께는 모든 권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순수하게, 특히 성적으로 순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자주 그분께 돌이켜 겸손하게 그분의 신성한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라디아서 5:16).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여러분은 얼마나 강한 힘을 갖게 되겠습니까! 매주 일요일에 성찬을 취함으로써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기억하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 구주를 기억할 때, 불결한 것으로부터 돌아설 영적인 힘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십시오

성적 순결이 계명으로 주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혼이라는 범위 안에서, 오직 신성한 목적을 위해 출산 능력을 사용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귀한 능력을 어떻게 여기고 사용하느냐는 이 필멸의 기간 동안 누리는 행복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크게 좌우할 것입니다."[3]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적 친밀감은 사랑이 깃든 정서적인 화합을 낳습니다. 그러나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영원한 결혼 성약 밖에서의 그러한 은밀한 행위는 주님의 목적을 해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를 금하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심각한 정신적, 영적인 해를 끼칩니다. 결혼 전에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현재는 그 해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나중에는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성적인 부도덕은 …… 성신의 모든 영향력에 대해 장애가 됩니다."[4]

성적 친밀감은 욕망이나 인기, 또는 호기심을 충족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용한다면 *언제나* 불행이 닥쳐오고 영적인 성장이 제한됩니다.

자신을 준비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지켜 주실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들거나 남몰래 부끄럽게 느낀다면, 속죄의 권능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정직한 기도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감독님이나 지부 회장님을 찾아가십시오. 깨끗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깨끗해지고 그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있고 성신과 부모님과 지도자들과 살아 있는 선지자가 여러분을 지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 앞에서 깨끗해지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주

1. 보이드 케이 패커, "청소년들에게 주는 권고",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16쪽.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2012), 120쪽.
3.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우리는 순결을 믿는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42쪽.
4. 리차드 지 스코트, "의로운 선택을 함", *리아호나*, 1995년 1월호, 38쪽.

항상 조심하세요

익명

지난 4년간의 삶은 회한이 가득한 시간이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자랐고 많은 가족 회원과 친구들의 좋은 모범을 보면서 살아 왔다. 이런 축복에도 불구하고 나는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고, 그 결과 삶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봉착했다.

시작은 열세 살 때, 대중 매체에 중독되면서부터였다. 나는 끝없이 텔레비전을 보았고 비디오 게임 없이는 죽어 버릴 듯이 행동했다. 매체에 대한 중독은 다른 문제로 이어졌다.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없었는데, 그건 내가 정원회에 속한 아이들과 친구가 되려는 노력을 그다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친구를 찾고 싶었던 나는 내가 조심해야만 하는 곳을 기웃대다가 어느 온라인 대화방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일부 사람들이 올려놓은 음란물이 있었다. 다른 여러 문제에서 비롯된 나약함 때문에 나는 음란물에 쉽게 빠져들었다.

나는 그런 내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변명거리를 늘어놓았다. 누굴 해치는 일은 아니잖아, 그렇게 잘못된 일은 아닐 거야. 처음부터 음란물을 보는 것이 혐오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거기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나는 교회에서 바람직한 회원이 되고 싶었지만, 연이어 실수를 저질렀고, 오랫동안 그런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다.

감독님을 찾아가기까지 1년 반이 걸렸다. 감독님은 내가 음란물을 보고 싶어 하는 욕망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셨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 와드와 스테이크 사람들, 세미나리 반원들과 친구가 되었다. 나는 지금 열일곱 살이다. 최근에야 비로소 자유롭다고 느낀다. 매체에 대한 중독을 이겨 내고, 매일 진지하게 기도하며, 규칙적으로 경전을 읽은 지 겨우 몇 달 되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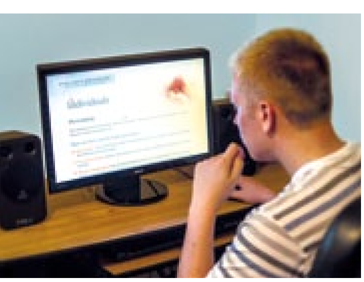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 중 어느 것이라도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애초에 나처럼 회개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괴로움은 훨씬 덜할 것이다. 나는 우리가 죄를 두려워 피할 정도로 죄에 따른 결과를 충분히 알아서, 되도록이면 죄로 고통을 겪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죄로 영혼이 죽을 수 있으며, 죄를 지으면 고통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악마는 우리를 미워하여 비참하게 만들고자 하며, 우리가 그를 용인한다면 영향을 끼칠 능력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서 자비와 사랑, 친절과 안전을 찾을 수 있다. ■

성적 순결에 대한 핵심 관념

"…… 유혹이 심해지는 상황은 피하십시오. …… 어떠한 형태의 외설물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영은 위험한 상황을 경고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벗어나도록 힘을 줄 수 있습니다. ……

어떠한 형태라도 성적인 범법을 행하도록 유혹받는다면, 부모님과 감독님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유혹에 저항하고 부적절한 생각과 감정을 극복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성적인 범법을 했다면, 이제 감독님에게 고백[하십시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36~3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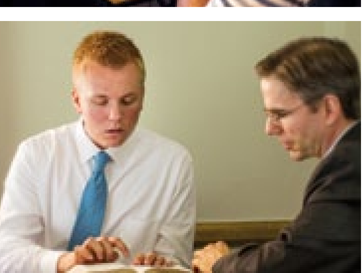


사진 삽화: 크레이그 다이먼드, ISTOCKPHOTO/THINKSTOCK 제공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좋은 친구들을 선택하는 방법

교회의 일부 와드와 스테이크를 선정하여 실시한 조사에서 우리는 매우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성전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대체로 성전에서 결혼했고, 친구들이 성전에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체로 성전에서 결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친구들의 영향력이 부모의 설득이나 교사의 가르침, 또는 성전의 지리적 근접성보다 더 결정적인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흠모하는 대상과 비슷해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다니엘 호손의 고전 "큰 바위 얼굴"에 나오듯 우리는 흠모하는 사람의 버릇, 태도와 행실까지도 따르게 되는데, 그러한 대상이 대개는 친구들입니다. **어울려야 할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렇듯, **한시적인 편리함, 피상적인 목표,** 또는 편협한 야심**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들, 즉 **영원한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기념 교회당의 동편 외벽에 새겨진 다음 글귀는 진리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은 너무나 짧고, 무한하지 않은 모든 것은 너무나 작다."[1]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 친구들의 범위를 넘어 **하나님 아버지와 친구가 될 것을** 촉구합니다. 그분은 마음을 다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며, 처음부터 끝을 아시는 **그분의 지혜는 빗나감이 없고 그분의 조언은 언제나 참됩니다.** 그분과 친구가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친구는 바로 **와드 감독님**입니다. 그는 권세를 지닌 자들의 예언과 안수를 통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에게 조언을 하고 인도를 해 줄 자격이 있습니다. 그분과 친구가 되십시오.

친구를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

2005년 11월 6일, 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 모임 말씀에서 발췌

주

1. http://www.stanford.edu/group/religiouslife/cgi-bin/wordpress/memorial-church/history/memorial-church-inscriptions/ 참조

사진 삽화: 조디 벨 디교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제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으며 날마다 위안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현세의 친구들은 제가 더 강한 간증을 얻고 교회에서 더 부지런히 일해야겠다는 더 깊은 열의를 품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깊이 통찰하는 시각을 갖도록 와드 감독님이 도와주신 덕택에, 저는 교회 회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고양시키는 친구들을 선택함으로써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이르도록 놓여 있는, 협착하고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사바나 에이, 미국 몬태나

일요일 공과

이번 달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속죄

우리는 인지하는 이상으로 많은 것을 행할 힘을 받을 수 있다.

조슈아 제이 퍼키
교회 잡지

2012년 여름, 팔라키코 시는 미국 하와이에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브리검 영 대학교 입학과 선교 사업을 고대하고 있었다. 팔라키코는 선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이미 많은 일을 했다. 하루 종일 전임 선교사들과 동반한 적이 세 번 있었고, 종종 선교사들과 함께 여러 가족을 방문하여 복음을 가르쳤다.

어느 저녁, 팔라키코와 선교사들은 일부만 회원인 가족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여덟 살에서 열네 살까지 다섯 아이가 있었는데 침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우리는 그 가족을 6주 동안 방문했어요." 팔라키코는 말한다. "매주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교리와 원리를 가르치면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곧 다섯 아이 모두가 침례 권유를 받아들였고, 팔라키코는 침례 집행을 부탁받았다. 그는 기쁨에 들떠 그러겠다고 했다. 그 가족에게 침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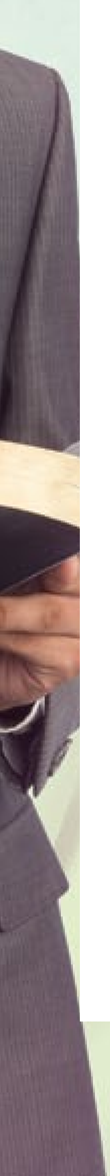


사진 삽화: 웰든 시 앤더슨

주는 일은 특권이자 영예로운 일이었다. 그러나 팔라키코에게 더 난감한 임무가 생겼다. 침례식에서 성신에 대한 말씀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다.

팔라키코는 꽤나 긴장이 되었다. “아이들이 평생 기억할 그날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하면 좋을까요?” 그는 물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긴장되긴 했으나 팔라키코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곧바로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능력껏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기도했고, 인도와 위안을 받고자 경전을 읽었으며, 마음속으로 침례 기도문을 되뇌었다. 그날 침례식은 순조로웠다. 말씀을 전하며 영을 집중하려고 노력하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인도받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말씀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영을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팔라키코는 말한다. “제가 주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기쁩니다.”

팔라키코는 구주의 속죄에서 오는 은혜, 또는 가능하게 하는 힘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해낼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능하게 하는 힘이란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적 특징인 회개의 원리를 배우고 적용해야 한다. 구주의 희생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죄를 이기고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가 죄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 구주의 은혜의 한 측면이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도 있다. 은혜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주어[지는] …… 신성한 도움 또는 힘”[1]으로 정의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화되어 “선행을 하는 선한 삶을 살며 우리 자신의 개인적 욕구나 선천적 역량 이상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된다.]”[2]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이 설명하셨듯이 “은혜라는 단어가 경전에서 강화시키거나 능력을 주는 힘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로 자주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3]

팔라키코는 구주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 스스로 해내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일을 성취할 수 있었다. 바로 그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구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인도나 도움이나 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기도 하다.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하며, 합당해야 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면 하나님의 권능, 즉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해낼 수 있는 권능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주님으로부터 힘과 권능을 받아서 우리의 통찰력과 재능, 능력이 확장됩니다.”[4]

이러한 양상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미국 워싱턴의 재스민 비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녀는 병에 걸리기 전에 고등학교 육상부에서 뛰어난 선수였으며, 아침 일찍 일어나 세미나리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건강한 청녀였다.

그런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몸무게가 갑자기 7킬로그램이나 줄었고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아침에 일어나서 세미나리에 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 전처럼 잘 달릴 수도 없었고, 늘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힘이 없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녀는 기도로 도움을 간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한다. “너무 오래 미루고 있었죠. 기도로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저에게 뭔가 정말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은 굴복 행위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하기가 무서웠어요.”

그러나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자 응답이 오기 시작했다. 의사를 찾아가자 제1형 당뇨병이 발병하여 몸이 당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인슐린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당뇨병은 평생 갈 수도 있어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한다. 의사들이 건강관리에 관한 계획을 세워 주었지만, 그녀는 이제 달리기를 할 수 없게 될까 봐 걱정이 되었다.

재스민은 이렇게 말한다. “새로 겪게 된 상황을 이해하고 병증을 조절해야 하는 일로 힘겨워하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 시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과 이해력을 간구했죠. 기도가 없었더라면 그 힘든 나날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재스민은 엄청난 진전을 보였다. 진단을 받고 2주 후, 다시 육상 트랙에서 연습을 시작했고, 연말에는 주 대회에 나가 좋은 성적을 거뒀다. 재스민은 이렇게 말한다.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강하고 건강한 몸을 축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당뇨가 있다고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께 의지함으로써 재스민은 자신의 병을 감당하고 삶에서 훌륭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은혜는 누구나 누릴 수 있다

우리를 강화하는 힘, 즉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구나 누릴 수 있다. 언제든 혼자라고 느끼거나 압도되어 감당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음을 기억하자.

칠십인 정원회의 크레이그 에이 카든 장로님이 설명하셨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속죄의 가능하게 하는 힘으로 *강화되며* [야곱서 4:7 참조],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릴]'[모사이야 3:19] 때는 구속의 권능으로 *성결해집니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 특히 되풀이되는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더는 구주로부터 도움과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 줍니다."[5] ■

주

1. 경전 안내서, "은혜", scriptures.lds.org.
2.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필멸의 여정과 속죄", *리아호나*, 2012년 4월호, 15쪽.
3.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주의 힘을 입어",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76쪽.
4. 리차드 지 스코트, "가정의 평화를 위해",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30쪽.
5. 크레이그 에이 카든, "구주께서는 용서하고자 하십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15쪽.

대화에 참여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고 일지에 그런 경험을 기록한다.
- 자신의 능력을 함양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며 시간을 내어 구주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 생각해 본다.
- 가정이나 학교, 교회, 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간증과 경험을 나눈다.

사진 삽화: 데이비드 스토커

여러분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모범을 보이거나 가족을 돕거나 친절을 보일 때마다
여러분은 가정이 강화되도록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2011], 14쪽 참조)

어떤 사람과 "정식으로 사귀기" 전에 몇 번 정도 데이트를 해도 될까?

학교에서 들려주거나 보여주기도 하고, 선생님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야."라고 말씀하신다면, 나쁜 부분이 포함된 노래를 듣거나 영화를 보아도 되는 걸까?

운동부에 속해 있다면 정숙하지 않은 복장을 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이걸 해도 되는 걸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을 여러분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하이디 맥콩키

미국 캘리포니아의 브룩 피는 결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냥 팀원들에게 맞춰 주는 것이 훨씬 편할 것이 분명했다. 다른 친구들은 연습 시간과 경기 때에도 자기들처럼 입으라고 압력을 넣고 있었다.

브룩은 정숙함을 유지하겠다는 결심을 이미 했었지만, 그 결심이 자신이 하는 운동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알지 못했다. 운동할 때만큼은 다른 팀원들처럼 입어도 괜찮지 않을까?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브룩은 이렇게 말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경전, 교회 말씀 등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살펴보았어요. 어디에도 제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나타내거나 구체적인 조언을 주는 내용은 없었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아시며 무엇이 정숙함인지 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브룩은 다시 행동을 취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브룩은 기도를 드리며,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소망을 말씀드린 후 운동 연습이나 경기를 할 때 팀원들처럼 입어도 괜찮은 건지 여쭈었다.

기도를 드린 후, 브룩은 동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복장에 대한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결정이 친구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자신의 선택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는 것임을 알았기에 브룩은 자신감과 평안을 느꼈다.

사진 삽화: 스톡 데이비스, 옷과 음식 사진: ISTOCKPHOTO/THINKSTOCK 제공, 배경 사진: ISTOCKPHOTO/THINKSTOCK 제공

여러분의 이야기

브룩과 같은 곤경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도 비슷한 곤경에 처해 본 적은 있을 것이다. 정숙함을 유지하고, 고상한 언어를 사용하고, 건전한 오락물을 보고,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등 복음의 표준대로 살기 위해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던 중에 쾅! 누군가가 갑자기 갈등을 조장하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갑자기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니파이후서 2:11)이 있다는 말씀이 그저 자주 인용되는 경전 구절 이상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친구들이나 심지어 가족조차 여러분이 옳다고 느끼는 것과는 반대로 옷을 입으라거나 말을 하라거나 행동하라고 압력을 가한다. 복음에 맞는 옳은 선택을 하고 싶지만,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기 시작할 수도 있다. *표준대로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브룩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연구와 기도,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의 질문

일상생활은 의문으로 가득하다. 학교에 무엇을 입고 갈까?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누구와 어울려 놀까? 일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은 꽤 간단하다. *길가에서 발견한 이 껌을 씹을까?* 아니다. 이건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는 질문이다. 그러나 어떤 것은, 특히 표준에 관한 것들은 대답하기가 훨씬 까다로울 수 있다. *어떤 음악이 듣기에 적절한 음악인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낼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살아 있는 선지자들이 복음 표준을 제시해 주었고, 여러분은 그분들의 가르침을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공부할 수 있다.

표준을 공부한 후에도 각각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늘 정확히 알 수는 없을 텐데, 그것이 정상이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특정 표준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주님께서 니파이에게 배를 만들라고 명하셨던 몰몬경 속 이야기를 생각해 보라. 니파이는 주님의 명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당장은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시도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도움을 간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어디로 가야 내가 녹일 광석을 찾아, 주께서 나에게 보여 주신 방식을 좇아 배를 건조하기 위한 연장을 만들 수 있겠나이까?"(니파이전서 17:9) 그는 무엇이 첫 단계인지, 우선 도구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내고는 주님께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여쭈었다. 주님께서는 니파이의 물음에 대답하셨고,(그는 차근차근 배를 만들어 나가 완성할 수 있었다). 계명에 순종하고자 노력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물음에도 대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대답

어떻게 특정한 표준에 따라 살아야 할지, 또는 어떻게 특정한 계명에 순종해야 할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우선 경전을 찾아보고,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신앙에 충실함, 선지자의 가르침

연구와 기도,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을 수 있다.

등을 찾아보고, 기도한다. 소책자에 나열된 관련 성구들을 찾아보거나 연차 대회 말씀을 읽고 더 많은 성구를 추가로 찾아볼 수도 있다. 복음 공부를 통해 지식을 추구할 때, 성신은 "[여러분의] 이해력을 밝혀 [줄]"(앨마서 32:28) 것이다.

또한 가족들이나 친구들,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알려 주고, 지지와 격려를 하며, 비슷한 문제에 대한 경험을 들려주면서 어떻게 문제를 극복했는지 이야기해 줄 것이다.

때로는 기도하고,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다시 읽고, 경전을 공부하고, 조언을 구하였는데도 여전히 특정 표준에 대해서는 안개 속을 헤매는 듯 불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다. 훌륭한 조언을 받았더라도 막상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려면 도로 지도 대신에 지구본을 들고 길을 찾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어떤 때에는 오랜 시간 연구하며 심사숙고하는 사치를 접어 두고 신속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어느 경우든, 기도가 강력한 방편임을 기억하도록 한다. 기도는 최후 방편이 아니다. 기도는 지식 추구의 여정을 시작할 훌륭한 시작점이며 과정 내내 유용한 도구로 쓰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아시기에, 여러분의 재능과 과제, 강점, 분투가 무엇인지 아신다. 그러므로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의 표준을 가장 잘 따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말이다! 자신의 삶에 복음을 끼워 맞추려는 함정에 빠지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는 우리의 삶을 복음에 맞추는 방법을 보여 주실 것이다. 신앙으로 기도할 때, 그분은 여러분을 가르치실 것이며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교리와 성약 100:6) 여러분을 위한 답을 주실 것이다.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그러한 기회는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았기에 주어지는 위대한 축복의 하나이다.

여러분의 모범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 생활할 때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계명을 지키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개인적인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좋은 모범이 되고자 노력할 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복음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조차도 언제나 여러분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라. 좌절감이 들더라도, 한때는 여러분에게도 누군가가, 아마도 엄마 또는 아빠였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조차 알려 주어야 했었음을 기억하자. *가령, 길에서 발견한 이 껌을 씹을까?* 하는 질문 같은 것에 대해서도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더 까다로운 문제, 단답형이 아닌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 노력할 때 자신과 사람들에 대해 인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표준을 어떻게 생활에 적용하는가?*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사람들로, 다만 날마다 온전한 복음대로 살기를 배우며 온전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한다. 이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자신의 의문에 대한 답을 적극적으로 찾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한다. 그렇게 할 때 늘 기억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

하이디 맥콩키는 미국 델라웨어에 산다.

해답을 찾아서

경전은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구주께서 "나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제3니파이 12:48) 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신 것일까요?

경전에서 온전하다(또는 완전하다: perfect)라는 말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충만하게 발전된 상태, 전적으로 의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이들은 그의 은혜와 속죄를 통하여 완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1]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이 생에서 온전함을 이룩하는 길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의무를 수행하고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 노력할 때 달성될 수 있습니다. ……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우리의 행위와 마음의 소망에 따라 축복하실 것입니다."[2]

구주께서는 온전해지는 것이 결코 실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실수를 한다면 온전함에는 결코 다다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로렌조 스노우(1814~1901) 회장은 이생애에서 온전함에 이르는 열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 그리하여 날마다 조금씩 더 나아지십시오."[3] ■

주

1. 경전 안내서, "완전한", scriptures.lds.org.
2. 러셀 엠 넬슨, "언젠가는 실현될 온전함",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86쪽.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 (2012), 103쪽.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친구가 있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느낌, 기도에 대한 응답, 기적 등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이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옳습니다. 모든 것을 과학적인 언어로 설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사물을 설명하는 과학의 능력은 종교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경험이나 기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받아들인다 해도, 과학은 단지 그 사건을 *설명할* 뿐입니다. 과학은 그 안에 내포된 진리나 의미, 또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며 그분께로 돌아가기 위해, 그리고 신앙, 소망, 사랑 및 다른 모든 신성한 속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 주십니다. 자연 현상에 대한 종교적 해석이 과학을 파괴하지 않는 것처럼, 과학 또한 그렇습니다. 종교적 경험에 대한 과학적 설명은 종교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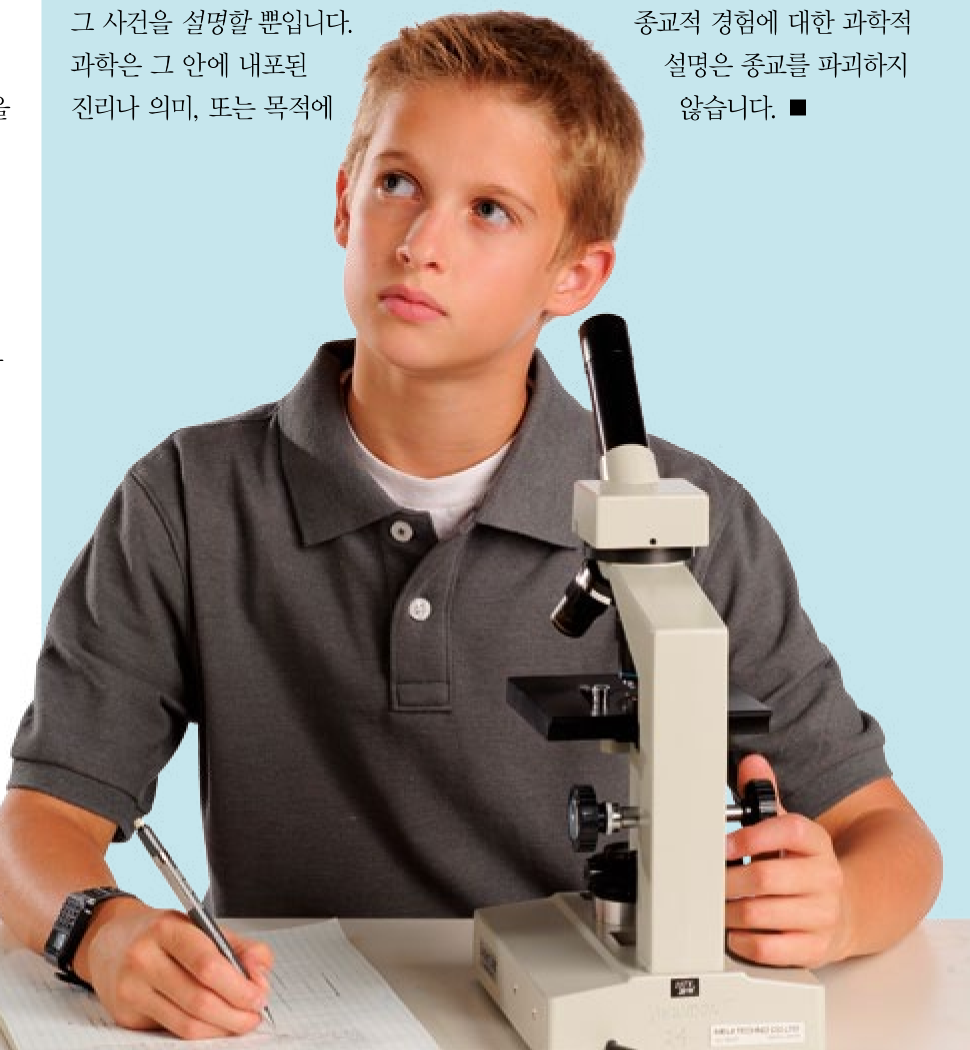


사진 삽화: 로이드 엘드레지; 그래픽: ISTOCK/THINKSTOCK

스테파니 에이서슨

인터넷 펜팔

우리 가족의 친구인 알렉산더 아저씨가 나에게 자기 조카 룰에 관해 이야기하셨다. 그 아이가 내 또래이니 친구가 되어 보면 좋겠다고 하셨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는데, 실제로 몇 주 후에 그 아이는 페이스북에서 나를 친구로 등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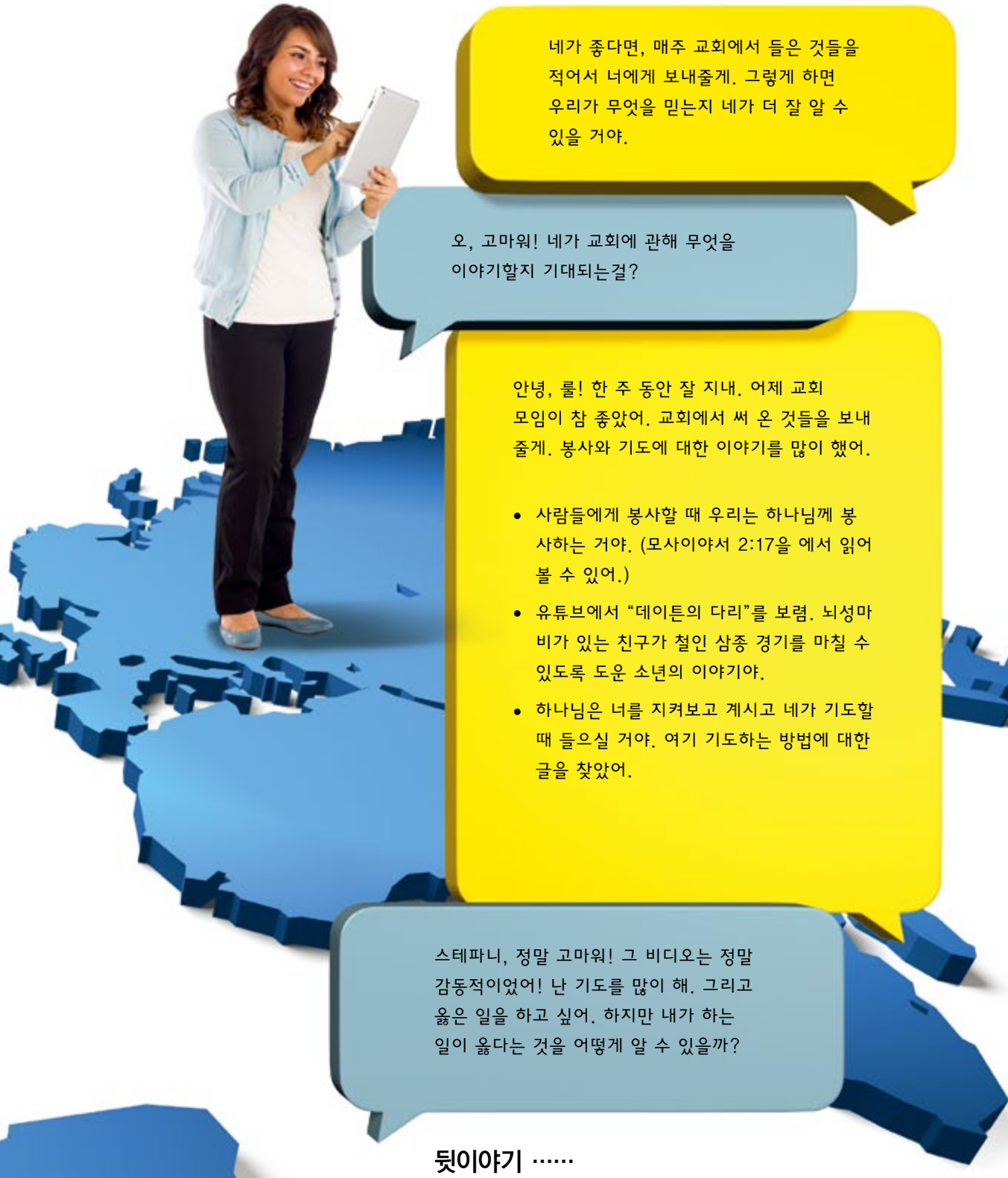
안녕, 스테파니! 나는 룰이야. 알렉산더 삼촌의 조카. 삼촌이 네가 내 또래라고 하시더라.

안녕, 룰. 너에 대해 이야기 들었어. 알렉산더 아저씨가 네가 알바니아에 산다고 하셨지. 진짜 멋지다!

재미있다. 나한테는 미국에 사는 게 멋지게 느껴지는데! 하하하. 이번 주말에 뭐해?

토요일 아침에는 농구 경기가 있어. 그 다음엔 후기 성도 교회 성전에 가.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고. 뭐 하고 있니?

별일 안 해. 인터넷에서 솔트레이크 성전 사진을 봤어. 아름답더라! 삼촌이 그러시는데 너도 삼촌처럼 몰몬이라며? 나도 삼촌 따라서 교회에 몇 번 가 봤어. 아주 좋았어! 매주 가고 싶긴 한데, 보통 일요일에는 식구들하고 해야 할 일들이 있지.



네가 좋다면, 매주 교회에서 들은 것들을 적어서 너에게 보내줄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네가 더 잘 알 수 있을 거야.

오, 고마워! 네가 교회에 관해 무엇을 이야기할지 기대되는걸?

안녕, 룰! 한 주 동안 잘 지내. 어제 교회 모임이 참 좋았어. 교회에서 써 온 것들을 보내줄게. 봉사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

-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야. (모사이야서 2:17을 에서 읽어 볼 수 있어.)
- 유튜브에서 "데이튼의 다리"를 보렴. 뇌성마비가 있는 친구가 철인 삼종 경기를 마칠 수 있도록 도운 소년의 이야기야.
- 하나님은 너를 지켜보고 계시고 네가 기도할 때 들으실 거야. 여기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찾았어.

스테파니, 정말 고마워! 그 비디오는 정말 감동적이었어! 난 기도를 많이 해. 그리고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뒷이야기 ……

스테파니는 여전히 룰에게 필기한 것을 보내 주면서 질문에 대답해 주고, 복음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스테파니는 일요일에 기록을 하면 "공과 내용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룰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스테파니는 부모님과 복음에 대해 더 의미 있는 토론을 하게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스테파니는 선교 사업에 대해서도 배웠다. 스테파니는 이렇게 말한다.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저는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 이름은 가명으로 변경되었다.*

페이스북에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부모님이나 보호자와 상의하십시오.

그 전화를 놓쳐서는 안 돼

모든 연차 대회에는 우리 각자를 위한 메시지가 꼭 있기 마련이다. 그것을 놓치지 말자!

데이비드 딕슨
교회 잡지

엄청나게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상상해 본다. 가령, 대학 열두 군데에 원서를 넣었는데, 가장 가고 싶은 학교에서 목요일 저녁에 합격 여부를 알리는 전화가 올 것이라고 하자. 그런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학교는 전화해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자에게 상세한 사항을 알려 주는 그 전화를 받지 못한다면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를 할 것이다.

대학은 아직 너무 먼 일이라 상상이 되지 않는다면, 안절부절못하며 기다릴 다른 무언가를 상상해 본다.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운동부나 무용 교실, 학교 뮤지컬 등에 합격했는지 여부를 알리는 전화가 올 것이다.

자, 이제 문제는 이것이다. 기다리는 전화를 받기 위해 전화기 옆에 붙어 있겠는가?

그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여러분은 전화벨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전화를 놓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6개월마다 여러분의 삶에

삽화: 데이비드 하빈

지극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여기에도 주의할 점은 있다. 그 메시지를 받으려면 우선 참석을 해야 한다.

쏟아지는 계시

연차 대회는 영적으로 고무되고, 영감을 받고, 강화되는 시간이다. 또한 개인적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쳤다. "이 교회의 연차 대회는 참으로 훌륭한 행사입니다. 이 대회에서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고대 이스라엘 지파를 위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 계신 선지자를 통해 그분의 뜻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을 천명합니다."[1]

기도해 온 질문이 있다면 연차 대회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질문이 없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여러분이 꼭 들어야만 하는 메시지를 들을지도 모른다. 때로, 우리가 받는 가장 중요한 영감은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연차 대회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연차 대회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우리는 6개월마다 모여서 서로 강화하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신앙을 증진합니다. 우리는 배우려고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실망이나 상실감으로 괴로워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영을 느끼며 깨달음을 얻고 마음이 고양되며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연차 대회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들은 우리 시대의 경전과도 같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연차 대회를 위해 영적으로 준비하고 메시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가르침과 영감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받게 될 것이다.

영감을 받기 위해 준비함

연차 대회 전에 시간을 내어 계시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언제나 도움이 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구하라고 권고하셨다. "만일 네가 구하면, 계시 위에 계시를, 지식 위에 지식을 받을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 비밀과 평화로운 것들을 알게 되리니 –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을 알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42:61)

개인적인 계시는 언제 어디서든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연차 대회를 면밀히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오직 연차 대회에서만 선지자들과 사도들, 기타 여러 지도자들의 말씀을 그토록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다.

2013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의 어린 회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면 더 분명하게 영의 영향력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3]

연차 대회의 모든 모임이 중요하다

다시 그 중요한 전화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여러분은 그런 전화가 오리란 걸 알았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화기 옆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말에 잠시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연차 대회의 모임 한두 개를 건너뛰는 일은 어떤가? 토요일 오전에 하이킹 약속이 있으니 "딱" 첫 번째 모임만 보지 않기로 했다면, 만일 그 시간이 여러분이 반드시 들었어야 할 모임이었다면 어떨까?

연차 대회를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는 지역에 살든 대회를 보기 위해 얼마간 기다려야 하는 지역에 살든, 대회를 볼 수 있게 되는 즉시 모든 말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언제나 가치 있는 일이다.

연차 대회에 들을 준비를 하고 참석하고 기꺼이 모든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이 가장 들을 필요가 있는 영감을 받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오늘 결심하도록 한다.

언제 전화벨이 울릴지 모르니 말이다. ■

주

1. 제프리 알 홀런드, "왕국의 평화로운 것들", *리아호나*, 1997년 1월호, 82쪽.
2. 토마스 에스 몬슨, "다시 모이게 되어",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4쪽.
3. 로버트 디 헤일즈, "연차 대회: 신앙과 간증을 강화함",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6쪽.

정말 누군가가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걸까?

루카스 에프(10세), 브라질,
수잔 배렛

"나 매일 같이 하나님께 신앙으로 기도할 때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네"("나 신앙으로 기도합니다," 성도의 벗, 1991년 3월호, 53쪽)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초등회 선생님께서 다음 주 함께 나누는 시간에 말씀을 해 달라고 부탁하시며 "기도에 대해서 간증해 보렴."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공과 시간에 기도에 대해 막 배웠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혼자서도 늘 기도를 해 왔고 가족 기도 때도 종종 기도를 했었습니다. 음식을 축복하는 기도도 여러 번 해 보았고, 전에 초등회 시간에도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에 대한 *간증*이 있는지, 또 기도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걸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고 계시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엄마! 기도에 대한 간증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기도에 대해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엄마는 저를 안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가정의 밤에서 기도에 관한 공과를 해 주겠니? 그때 함께 이야기해 보자꾸나."

엄마는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와 연차 대회 말씀을 찾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가정의 밤과 초등회 말씀을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공과 시간에, 부모님은 기도가 어떻게 그분들께 도움이 되었는지

루카스는 여러 번 기도했는데, 기도에 대한 간증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시작하세요.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런 후 필요한 것을 간구하세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며 마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에 관해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꼭 무릎을 꿇거나 교회에서만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거나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내거나 마음속으로, 홀로 혹은 여럿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 특별한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언제나 경건하게 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존경심을 표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겸손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제 개인적인 증언과 간증을 전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다시 만날 때까지",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114쪽.

들려주셨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초등회에서 말씀을 했지만, 별로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나에게 정말 기도에 대한 간증이 있는지 여전히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진지하게 기도했지만, 곧바로 응답이 온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는 하루 종일 직장을 찾아나서셨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오셨습니다. 아빠는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몇 주 동안 일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빠께 달려가서 여느 때처럼 안아 드렸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아빠." 그러다 갑자기 가슴속에 어떤 느낌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지금 말이니?" 아빠께서 되물으셨습니다.

"네, 바로 지금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을 기도드렸습니다.

기도 후에는 경전을 읽었고, 매일 밤 그렇듯이 우리는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슬픔이 행복으로 조금씩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늘 우리 집에 머물던 그런 행복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으며,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다는 색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멋진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도 같은 기분이셨습니다. "느낄 수 있겠니, 루카스?" 엄마께서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신이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도록 해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있단다."

"네, 느껴져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은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이제 저도 기도의 힘에 대한 간증이 생겼습니다. ■

“여러분의 그 명석한 두뇌를 활용하여 신앙개조와 그 안에 담긴 교리를 공부하고 배우십시오.”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2013년 10월 연차 대회

우리들 이야기

저는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 회원인 것이 좋아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나 성전 보고 싶어"(*어린이 노래책*, 99쪽)입니다. 우리 가족이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정말 행복해요.

애토니나 티(10세), 사모아

예리 알(12세), 에콰도르

제 몸은 성전입니다. 저는 제 몸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옷을 단정하게 입어요.

로리엔 피(6세), 필리핀

이분들은 제일회장단이십니다. 매일 저녁, 저는 잠자기 전에 인터넷으로 연차 대회 방송을 찾아 듣습니다. 다음 연차 대회가 무척 기다려집니다.

리나 에이치(10세), 일본

멕시코에 사는 이타리 브이(5세)는 무척 순종적인 아이입니다. 이타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의 그림을 즐겨 그립니다. 가장 좋아하는 초등회 노래는 "나 성전 보고 싶어"(어린이 노래책, 99쪽)입니다. 성전에 핀 꽃들을 보는 것도 좋아한답니다. 기도할 때는 늘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는지 말씀드립니다. 이타리는 초등회를 좋아하고 여동생인 아일리메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려고 합니다.

저는 짐바브웨에 사는 텐다이입니다

애미 제인 레빗

*Mhoroi, shamwari!** 짐바브웨라는 나라에 사는 텐다이를 만나 볼까요?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남쪽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코뿔소, 코끼리, 물소, 사자, 기린 등 많은 동물이 삽니다. 하지만 텐다이는 짐바브웨에서 가장 큰 도시인 하라레 근처에 살기 때문에 집 가까이에서 이런 동물들을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텐다이는 이런 멋진 동물들이 짐바브웨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

* "안녕, 친구들." (쇼나어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전 이야기는 니파이가 배를 지으라는 명을 받았던 이야기예요. 니파이처럼 언제나 옳은 일을 행할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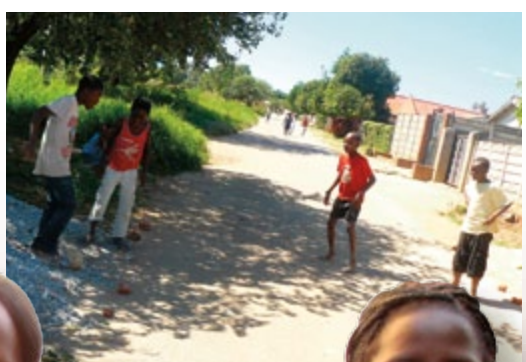
초등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초등회 발표 시간입니다. 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내버 패밀리 아티 트레블: 샵, 왕, 제, 프레드 타이

숙제를 마치면 저는 누나의 공부를 도와줍니다. 누나는 작은 어려움이 있어서 배우는 걸 힘들어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는 다른 아이들을 돕는 것도 좋아합니다. 어떤 애들은 다른 애들을 놀리기도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루는 친구 몇 명이 저희 집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나쁜 말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킬킬거리며 웃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재미있지 않았고,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 친구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가족은 제게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누나와 쌍둥이 여동생이 있는데, 두 여동생과 저는 엄마와 증조할머니, 그러니까 고고(Gogo)와 함께 삽니다. 고고는 우리말인 쇼나어로 "할머니"라는 뜻이랍니다.



전 성전이 보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성전에 가려면 13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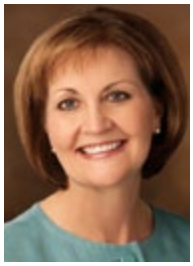
출발해 봅시다!

텐다이의 가방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방에 챙겨 넣고 싶나요?

짐바브웨에 사는 무디와

무디와는 지금 교회에 가기 위한 옷차림을 했지만, 여러분은 무디와에게 학교에 갈 때 입는 옷이나 무도회 복장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색칠해서 잘라 내기 전에 풀을 발라 두꺼운 종이에 붙여 보세요. 어른에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세요. ■

삽화: 에이프릴 크토스



린다 케이 버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영을 느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9:14)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두 가지 작은 사건이 기억납니다. 각 사건은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영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첫 번째는 저희 오빠가 아팠을 때 일입니다. 아버지는 와드의 한 형제님에게 우리 집으로 와서 신권 축복을 도와 달라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축복하기 전에 가족들이 모이자 그 형제님은 저를 비롯한 어린이들이 축복의 영을 방해할 수 있으니 내보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린이들의 순수한 신앙이 필요하므로 축복을 주는 동안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드럽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렸지만, 영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또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가족과 성찬식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는 음악에 재능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직접 나서시는 대신, 저를 포함하여 딸들에게 노래 부를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영감을 받아 우리에게 부르게 하신 그 노래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이야기 들을 때
나도 그곳에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어린이 노래책*, 35쪽)

우리 자매들끼리 그 노래를 부르는데, 가슴속에 따뜻하고 행복한 느낌이 스며들었습니다. 성신이 제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도록 도와주셨기에 제 연약한 간증은 강해졌습니다.

성신의 축복과 저의 부모님, 그리고 저의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다

침대에 누워 있는 열두 살 소녀의 병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어찌하지 못하고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소녀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에 사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들은 놀라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볼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딸의 생명을 구해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녀의 아버지인 야이로는 예수를 찾아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 딸을 낫게 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때 심부름꾼이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때가 너무 늦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마가복음 5:36)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야이로는 집에 도착해서 딸이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일어나자 부모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딸을 다시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소녀와 그 가족을 보살피시면서 얼마나 그들을 염려하고 사랑하는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과 염려를 수많은 놀라운 방법으로 보여 주십니다.

- 그분은 아름다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는 일을 도우셨습니다.
- 매우 힘든 일이 되리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자원해서 우리의 구주로 지상에 오셨습니다.
- 일생을 지상에서 축복과 병 고침, 가르치는 일을 하며 보내셨습니다.
- 그분은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꺼이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덕분에 우리는 부활해서 하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노래와 성구

-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찬송가*, 111장)
- 요한1서 4:14

가족과 대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를 읽는다.(누가복음 8:42, 49~56 참조) 그런 후 다음 면에 있는 구주의 사진을 가족에게 보여 주고,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 주신 위대하고도 놀라운 방법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말해 보게 한다. 가족은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의 가사를 한 절씩 돌아가며 읽어도 좋다. 노랫말을 읽은 후 가족에게 제창하자고 한다. 그런 후 가족이 구주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하거나 그림으로 그린다.

왼쪽: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리스도*, 그레그 케이 올슨; 오른쪽: *그리스도와 어린이*, 칼 하인리히 블로흐

축복으로 가득한 정원

린다 프랫
실화에 근거

윙윙! 윙윙! 윙윙! 바쁘게 날아다니던 노란 꿀벌이 안드리아 곁에 있는 꽃에 내려앉았습니다. 안드리아는 벌떡 일어나 달아났습니다. 벌을 싫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드리아는 토마토밭에 무성한 잡초를 뽑기 위해 정원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햇살이 안드리아의 등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안드리아는 옥수수 밭 근처에 계신 엄마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윙윙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윙윙! 윙윙! 윙윙!* 안드리아는 엄마를 찾으러 달려갔습니다.

삽화: 애덤 코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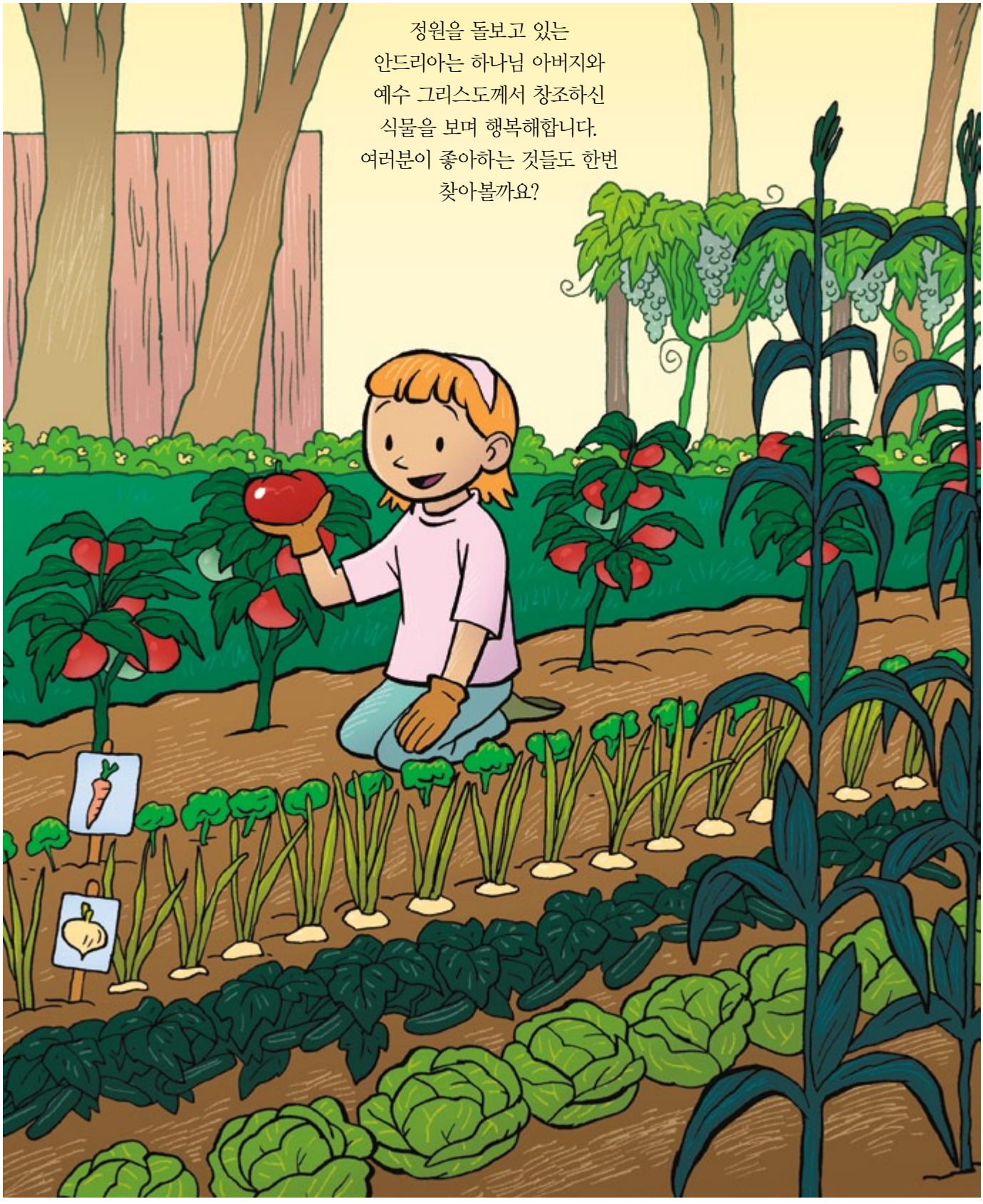
"엄마, 벌이 너무 많아요." 안드리아가 말했습니다. "벌이 없는 정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벌을 창조하셔서 식물들의 꽃가루를 옮기게 하셨어. 그 덕분에 우린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란다."

"벌 없이는 정원도 없다는 이야기네요?" 안드리아가 여쭈었습니다. 안드리아는 좋아하는 식물을 모두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드리아는 예쁜 꽃도 좋아하고 딸기와 토마토도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 세상에 산다면 안드리아는 슬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물을 만드셔서 정말 좋아요." 안드리아가 말했습니다. "벌을 창조해 주신 것도요!" ■

과일과 채소를 찾아보세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로리 풀러
교회 잡지

어느 저녁, 나는 동생 셋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대리 침례를 받으려 했는데, 성전 봉사자가 추천서를 확인하면서 동생 한 명의 추천서에 감독님의 서명이 빠져 있음을 발견했다. 나는 감독님께 전화를 해 주실 성전 사무장에게 전할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성전 봉사자는 남동생의 추천서를 확인했고, 그것 역시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펜을 들고 있던 나는 다시 서류를 받아서 작성하기 시작했다.

나는 동생들이 문제가 있는 성전 추천서로는 들어갈 수 없음을 알았다.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느꼈기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나 역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성전 밖에서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실망스러웠다. 우리는 침례탕을 나왔고, 안내 데스크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계단을 타고 성전 입구로 향했다. 몇 분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성전 사무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넷은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렸다.

나는 행정 착오 때문에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성전 밖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실망했다.

기다리는 동안 내 실망감은 낙담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그처럼 단순한 오류 때문에 바깥에 계속 있었다. 그 잘못이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 대신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큰 차이를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그날은 힘든 하루였기에 나는 성전에 의지하여 평화를 느끼고 싶었다. 그 잘못이 내 탓은 아니었지만,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울고 싶은 마음만 가득해졌다. 나는 성전에 갈 수 있도록 선하게 살고 또 동생들에게 성전 참석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 주려 했다. 그런데 그토록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왜 우리는 바깥에 있어야 하는 거지?

그때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두어 가지 행정 착오로도 성전 밖에 있으면서 낙담하게 되는데,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하는 잘못을 저질러 합당하지 못해 밖에 머물러야 한다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마음이 진정되었다. 하나님이 내가 배우기를 바라시는 교훈을 배웠다고 느꼈다. 나는 그분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언제나 합당하게 살겠다고 약속했으며, 절대 내 잘못으로 주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내 행동으로 대기실에 있어야 하는 제재를 받고 싶지 않다.

그날 저녁에 나는 성전 추천서를 갱신하기 위해 감독님과 접견 약속이 있었다. 가기 전에 나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할 잘못이 있지나 않은지 나 자신을 점검했다. 감독님이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지 물으셨을 때, 나는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 매우 감사했다. ■

사진 삽화: 웰던 시 앤더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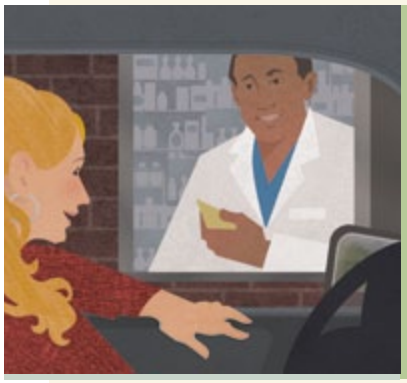
삽화: 로버트 티 배럿

에즈라 태프트 벤슨

에즈라 태프트 벤슨은 가족 농장에서 많은 일을 하며 **일손**을 도왔습니다. 농장일을 좋아했던 그분은 농업 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후에는 **워싱턴 디시**에서 미 농림부 장관으로도 일했습니다. 벤슨 회장님은 **몰몬경**을 사랑했고 교회 회원들에게 가족과 더불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몰몬경을 공부하라고 독려하셨습니다.

이번 호에서

청년 성인에게



성공을 거두기 위해

법대생, 약국 손님, 엘리베이터 운전원인 세 명의 청년 성인이 일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나누는지 보여 준다.

42쪽

청소년

64쪽

연차 대회가 열리는 주말에 할 일이 좀 있는데 연차 대회 몇 모임을 건너뛰어도 괜찮겠지?

그 전화를 놓쳐서는 안 돼

어린이

영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이라 하더라도 성신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속삭일 수 있습니다.

73쪽

4 KOREAN 021109 83320 4
10983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